

장마와 매우(梅雨) 사이:

기후는 식민지 조선의 농업을 어떻게 규정하였는가*

안 승 택

전북대학교 쌀·삶·문명연구원

- | | |
|-----------------------------|------------------------|
| I. 들어가며 | IV. 식민지 조선의 장마와 농업에 대한 |
| II. 츠유(梅雨)와 장마의 지역적 전개 | 일본인의 인식 |
| —반건조지대 한반도 | V. 맺으며—한계와 의의 |
| III. 반건조 자연환경 아래 농업기술의 기본성격 | |
| —논밭병행영농의 생태적 의의 | |

I. 들어가며

우리가 장마라고 부르는 여름철 우기의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강수량상은 동아시아 계절풍(monsoon) 지대에 특유한 기상현상이다. 이 우기는 벼의 성장기와 일치하기 때문에 동아시아 농업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가령 일본에서 간행된 『벼의 아시아사』는 동아시아의 벼농사지대를 관개이앙형, 산파중경형(散播中耕型), 부도형(浮稻型), 화전형 등 네 개의 중심역과 여섯 개의 주변구로 구분한 바 있다.¹⁾ 이 중 ‘관개이앙형’ 지역은 강수패턴 상으로 여름형 습윤구, 즉

* 이 글은 본인의 박사학위논문 『식민지 조선의 근대농법과 재래농법: 경기남부 논밭병행영농의 환경·기술·역사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서울대 대학원 인류학과, 2007, 이하 앞 줄고), 제3장 2절 3소절 및 제4장 1절 2소절과 배경적인 문제의식 및 일부 자료를 공유한다. 그러나 선행연구 검토와 자료를 추가하고 새롭게 논리를 구축하였으며, 이미 사용한 자료를 사용할 경우에도 다시 가공하거나 서술을 새로이 함으로써 서로 다른 글로서 작성되었음을 밝혀둔다.

“매우(梅雨)나 가을 태풍기에 비가 많이 오는 양자강 유역과 일본에 걸친 지역”과 거의 중첩된다.²⁾

여기에도 나타나듯이, 중국과 일본에서는 이 여름철(혹은 늦봄) 강수현상을 가리켜 한자로 매우(梅雨)라고 적고 각기 메이유(중국), 츠유 또는 바이우(일본)라고 읽는다. 기상학적으로 매우와 장마는 대륙성 한대기단과 해양성 북태평양기단 사이의 정체성 한대전선 상에 형성된 같은 강우대가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강수현상이다.³⁾ 현대어 번역례에서도 중국어 메이유, 일본어 츠유와 바이우는 모두 한국어 장마와 상호 통용된다. 중국에서 매우라는 표현이 나타난 가장 오래된 문헌은 후한대의 『풍속통의(風俗通義)』이며,⁴⁾ 일본의 경우 주로 사미다레(五月雨, 혹은 사츠키아메)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조선의 선조대 이후에 해당하는 에도시대에 들어서 일반적으로 매우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다.⁵⁾ 한·중·일 동아시아 삼국은 같은 온대계절풍지대에, 그리고 같은 한자문화권에 속하였고, 게다가 장구한 세월에 걸친 직간접적인 인적·물적·지적 교류를 통해 많은 개념어를 공유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중국과 일본에서 일반화된 매우 대신 장마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셈이다.

이 차이가 역사적으로도 실재하였던 것인지, 실재하였다면 그 차이가 왜 발생하였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매우가 아니라면 장마를 가리키는 역사용어가 무엇이었는지 하는 점은 현대 기상학 연구에서도 다루어진 바 있다. 가령 박정규·황제돈·전영신은 15~18세기 기간의 국역 조선왕조실록 CD-ROM에서 강수현상을 일컫는 용어들을 찾고 각각의 용례와 의미를 분석하였다.⁶⁾ 그 결과 매우(霖雨), 음우(霪雨, 陰雨, 淫雨), 임우(霖雨), 항우(恒雨) 등의 용어가 확인되는 가운데 매우(梅雨)는 단 한 번의 기록만이 발견되었으며, 이조차 일본국왕이 대장경을 청하는 서신 내용을 옮기면서 기록된 경우였다. 또한 매우가 사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1) 渡部忠世 編, 『稻のアジア史(1): アジア稲作文化の生態基盤—技術とエコロジー』 (小學館, 1987), 41-44쪽; 55쪽.

2) 같은 책, 37쪽. 이 책 55쪽의 분포도는 한반도를 기본적으로 ‘산과중경형’ 지대에 포함시키면서도, 중부 이북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선을 그어 6개 주변구 중 하나인 ‘화북형 직파주변구’로 분류하고 있다.

3) 이현영, 『한국의 기후』 (법문사, 2000), 123쪽; 127쪽.

4) 中國氣象出版社, 『大氣科學辭典』 7-12 (1994); 박정규·황제돈·전영신,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강수현상”, 『한국기상학회지』 37권 4호 (2001), 439쪽 재인용.

5) 류상범, “장마의 어원과 정의에 대하여”, 『대기』 11권 2호 (2001), 11쪽.

6) 박정규·황제돈·전영신, 앞 글.

는 “장마현상을 나타내는 강수용어가 다양하고,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되었다.⁷⁾ 그러나 이는 왜 매우(梅雨)로 통일되지 않고 다양한 용어로 나타나게 되었는지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다분히 동어반복의 순환논리가 아닌가 생각된다.

비슷한 시기 류상범은 기상학자들의 연구에 나타나는 장마라는 용어의 개념을 정리한 후 장마의 어원을 살피고 역시 역사적으로 매우라는 표현이 쓰이지 않았음을 확인한 바 있다.⁸⁾ 이에 따르면 우선 기상학자들의 연구에서 장마의 정의는 물론 시작과 끝에 대한 기준조차 통일되지 않아 연구마다 설정된 장마기간이 모두 달랐다.⁹⁾ 또한 당마>장마>장마는 길 장(長, 당)과 물을 뜻하는 옛말인 ‘마ㅎ’의 합성어로 ‘오란비’가 변한 것인데, 이는 늦봄 또는 여름철의 특정 우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에서 오래 내리는 비를 뜻하므로, 장마 대신 매우를 기상학적 용어로서의 장마—일상용어로서의 장마와 구별되는—로 간주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았다.¹⁰⁾ 그러나 이는 그도 지적한바 우리가 역사적으로 매우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던 배경을 사상하고 이를 우리의 기상학사 용어로 환치함으로써, 우리의 역사와 자연환경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오도할 소지가 있다.

장마의 정의와 기간이 연구자마다 서로 다른 사정은 비단 기상학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자연지리학 계열의 한 기후학 교과서는 장마가 “중부지방에서는 6월 24~25일경에 … 남부지방에서는 6월 21~22일경에 시작”¹¹⁾한다고 적은 바로 앞 쪽에서 “장마전선은 6월 하순에 우리나라 남해안으로 상륙하고 7월 10일경에 중부지방까지 도달한다.”고 적는 등¹²⁾ 서로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는 서술을 하고 있다. 차차 설명이 이루어지겠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상호 맥락화가 안 된 채 별도의 장에서 별개의 내용으로 나열되었기에 충돌하는 것처

7) 같은 글, 440쪽. 한편, 매우의 용례가 이토록 제한적이었던 것은 이들 연구의 자료 및 자료검색방법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가령 이산해(1539~1609)는 “시골 노인이 살아가는 계책은 서주(西疇)에 달렸는데 / 바로 황매우(黃梅雨)에 이양을 하는구나.”라고 읊은 바 있다. 염정섭, 『조선시대 농법발달 연구』 (태학사, 2002), 189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의 역사적 용례와 일반화 정도가 다대하지 않았다는 점 정도는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8) 류상범, 앞 글.

9) 같은 글, 8쪽.

10) 같은 글, 11쪽.

11) 이현영, 앞 책, 129쪽.

12) 같은 책, 128쪽.

럼 보일 뿐, 이들은 서로 모순된 설명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인의 감각에서는 이 두 진술이 모두 현실과 합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중국 중남부나 일본과 다른 한반도 문순 우기의 도래양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반도의 여름 강수량상이 중국의 양자강 유역이나 일본의 남부지방과 동일한 패턴을 보인다는 결론¹³⁾에 도달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국이나 일본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장마와 매우라는 동아시아의 우기를 가리키는 두 용어의 차이에 착목하여 한반도의 농업환경에서 우기의 실제 양상과 그 의미를 되짚어보고, 그러한 환경이 한반도의 농법에 어떠한 흔적을 남겼으며, 이와는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일본식 농법과 농학자·기상학자들이 어떻게 이에 적응하고 그 결과가 식민지 농정에는 어떤 식으로 각인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반건조지대(半乾燥地帶)라는 한반도의 기후적 특수성에 대한 주목으로부터 한국농업사의 주요 장면을 설명해내려는 문제의식¹⁴⁾을 계승하며, 농사를 짓는 현실 농민의 눈높이에서 농업사를 재구성하는 기획의 일환이 될 것이다.

II. 츠유(梅雨)와 장마의 지역적 전개—반건조지대 한반도

앞서 거론한바 매우와 장마를 완전히 같은 것으로 취급하거나 한반도와 중국 중남부, 일본이 같은 강수량상을 보인다는 식의 주장은 왜 한반도에서는 매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력을 상실한다. 장마의 어원과 정의를 분석하고 난 결론에서 “우리나라 기상학계에서 동아시아 여름철 우기를 매우라 표현하지 않고 ‘장마’로 표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 중국과 일본 기상학계에서는 매우전선이라고 부르는데 반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장마전선이라고 부르게 된 계

13) Lu, R. Y., Yong-Seung Chung and Rong-Hui Huang, “Interannual Variations of the Precipitation in Korea and the Comparison with Those in China and Japan”, 『한국환경과학회지』 4권 4호 (1995).

14) 宮嶋博史, “李朝後期における朝鮮農法の發展”,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8호 (1981). 반건조지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관련한 보다 적극적인 논의는 이호철에 의해 전개된 바 있다. 이호철, “식민지시대 농업 생산력 구조와 한전농법”, 『(중보개정)농업경제사연구』, (경북대학교출판부, 1992); “한국농업의 세계사적 의의”, 『농업사연구』 3권 2호 (2004).

기는 무엇일까?”¹⁵⁾라며, 서두에서 던졌어야 했을 질문을 새삼 제기해야 했던 것도 그 귀결일 것이다. 반면 다음 글은 일제시기 인천관측소장을 맡고 있던 일본인 기상학자에 의해 작성된 것이지만, 이 문제를 보다 정면에서 포착하고 있다.

조선의 우기...를 대별하면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남선(南鮮) 방면의 우기와 그리고 중부이북 즉 경인을 중심으로 한 북방으로부터 서선(西鮮) 방면에 이르는 우기, 완전히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남선방면의 것은 매해 거의 일정하게 오는 내지의 츠유(梅雨)와 완전히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시기도 예년 6월 중순부터 7월 초순에 걸쳐 일어나며, 중부지방으로부터 북쪽에 오는 우기는 예년 7월 중순부터 8월 초에 일어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조선의 예전 달력을 보면 츠유라는 것이 없습니다. 내지는 농작물에 중대한 관계를 지니기 때문에 이 츠유가 분명히 명기되어 있지만, 조선의 정치적 중심이었던 경성지방에는 츠유라고 부를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¹⁶⁾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한반도의 우기를 두 개의 패턴으로 양단하고, 남부의 것을 일본의 츠유와 같은 것으로, 중부 이북의 것을 츠유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점이다. 츠유, 곧 매우(梅雨)란 본디 ‘매실이 익어갈 무렵인 양력 6월에 내리는 비’를 뜻한다. ‘양력 6월에 비가 내리지 않는 한반도 중부 이북, 특히 정치적 중심인 경성에는 매우라고 부를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조선의 달력에는 매우가 없다’는 파악은, 왜 조선/한국에서 매우가 사용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핵심을 짚은 것이라 생각된다. 조선의 기상환경을 선불리 일본(및 중국)과 동일시하지 않는 인식도 평가할 만하다. 단지 중부이북에서 장마가 7월 중순부터 8월 초에 나타난다는 것은 오류로 보이므로 교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한반도 그리고 일본과 중국에서 실제 늦봄/여름철 우기의 강수량상이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요구한다.

우선은 이러한 설명의 전제인 일본 츠유의 전개양상이 어떠한 지부터 확인하기로 하자. 아래 <표 1>은 일본 기상청 자료를 토대로, 지역별 츠유의 시작 및 종료시기 평년값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일본의 츠유는 양력 5월초 아마미

15) 류상범, 앞 글, 12쪽.

16) 後藤一郎, “朝鮮の氣象と農業”, 『朝鮮農會報』 3권 8호 (1929), 9쪽. 저자인 고토 이치로는 1884년 일본 기후현(岐阜縣)에서 태어나 동경제대 이론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나가사키현(長崎縣) 기사(技師)로 재직하다가 1920년 총독부 기사로 조선에 건너와 이후 조선 총독부 관측소장에 취임하였다.

〈표 1〉 일본의 지방별 우기(츠유) 기간 평년값(1951~2006)

지방별	츠유 시작	츠유 종료	지방별	츠유 시작	츠유 종료	지방별	츠유 시작	츠유 종료
東北北部	6월 12일경	7월 27일경	東海	6월 8일경	7월 20일경	九州北部	6월 5일경	7월 18일경
東北南部	6월 10일경	7월 23일경	近畿	6월 6일경	7월 19일경	九州南部	5월 29일경	7월 13일경
北陸	6월 10일경	7월 22일경	中國	6월 6일경	7월 20일경	奄美	5월 10일경	6월 28일경
關東甲信	6월 8일경	7월 20일경	四國	6월 4일경	7월 17일경	沖縄	5월 8일경	6월 23일경

[출처: 일본 기상청(<http://www.jma.go.jp>)>기상통계정보>천기예보·태풍

비고: 지방별로 제시된 통계 평년값을 모아서 구성하였음.]

(奄美) 열도와 오키나와(沖縄)에서 시작되어 5월말 규슈(九州) 남부에 이르고, 6월 5일 규슈 북부로 올라선 뒤 6월 12일에는 도호쿠(東北) 북부에 도달함으로써 홋카이도(北海道)를 제외한 열도 전역을 우기권역에 포진시킨다.

매우라는 용어의 기원지이기도 한 중국의 경우는 어떨까. 일본과 같이 수십 년의 통계에 기반을 둔 전국적인 시작·종료일 평년값은 찾을 수 없었지만, 기본적으로 여름철 계절풍의 진퇴에 규정받는 가운데 화남은 5월 상순, 양자강 중·하류와 회하 유역은 6월 중순, 화북은 7월 상순에 주요 우기가 시작되고, 8월 하순에는 강우대가 다시 남쪽으로 물러가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⁷⁾ 다음의 <표 2>는 『중국의 국토환경』 각 지역편을 토대로 중국의 지역별 우기의 양상과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매우권역으로 분류되지 않는 동북과 화북을 제외하면,¹⁸⁾ 5월 하순에서 6월에 걸쳐 우기가 시작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다음의 <표 3>은 한국 기상청 자료에 나타난 한국의 지역별 우기(장마) 시작 및 종료시기 평년값 자료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한반도의 장마는 6월 19일 제주에서 시작되어 6월 22일 경 남부지역에, 23일 경에는 중부지역에 상륙한다. 종료 시기는 모두 7월 하순 초이다. 일본의 장마 시작시기에 비하면, 열도 전체의 최남단인 오키나와보다는 40여일이, 주요 4개 섬 중 남단인 규슈보다는 20여 일이, 가장 큰 섬인 혼슈의 최북단으로 홋카이도

17) 김추운·장삼환, 『중국의 국토환경(상)』 (한국학술정보, 2005), 153쪽.

18) 광대한 중국의 영역 중 매우의 권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은 북위 25°~35° 사이의 장강, 회하유역이며, 화중 지역을 중심으로 서남지역의 사천, 귀주 일부 지역이 포함된다. 김추운·장삼환, 『중국의 국토환경(하)』 (한국학술정보, 2005), 123-124쪽.

〈표 2〉 중국의 지역별 우기의 전개양상

지역별		우기시작	우기 종료	비고	출처
東北	東部	(5월)	(9월)	연강수량 400~700mm, 연중강수변화 적어 우기 개념 적용하기 어려움	B, 28쪽
	西部	(6월)	(8월)		
華北		7월 상순		연강수량 400~750mm, 매우권역 아님	A, 153쪽
華中		5월말 6월초	7월 하순	매우권역	B, 124쪽; 135쪽
	南嶺山地	5월 하순	6월 하순		
	江南丘陵	6월 상순	6월 하순		
	浙閩丘陵	6월 상순	6월 하순		
	九江安慶	6월 상순	7월 중순		
	南京撫湖	6월 하순	7월 중순		
西南	東部	5월말 6월초		연중 습윤(연중 74% 밤비), 매우권역	B, 175쪽
	西部	5월말 6월초		우기/건기 구분 뚜렷함	
華南	東部	5, 6월 강수량 최대	고온다습 열대·아열대기후(연중 150일 내외 강수), 연강수량 1,400~2,000mm		B, 185쪽; 189쪽
	西部	8, 9월 강수량 최대			

[출처: A는 주17에 인용한 김추윤·장상환, 『중국의 국토환경』 상권을, B는 주18의 하권을 뜻함.]

〈표 3〉 한국의 지역별 우기(장마) 기간 및 강수량 평년값(1971~2000)

지방별	시작일	종료일	장마기간	강수량(mm)
중부	6.23~24	7.23~24	32	238~398
남부	6.22~23	7.22~23	32	199~443
제주	6.19	7.20~21	33	328~449

[출처: 기상청(<http://web.kma.go.kr>)>국민참여>FAQ>역대 장마기간 강수량.]

바로 아래인 도호쿠 북부에 비해도 10일 가량이 늦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공식적인 장마 시작·종료일 자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활의 현장에서 느끼는 우기(장마)에 대한 감각이 반드시 이와 같지는 않다는 점이다. 즉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한반도에서 장마전선은 6월 하순 초 일단 남부 지방에서 형성되어 2, 3일 사이에 중부지역까지 북상하며 비를 뿌린 뒤, 다시 남하하여 남해 연안을 오르내리다가 7월 상순에서 중순으로 넘어가며 한반도 전역을 그 권역에 두게 된다. 따라서 6월 22, 3일 경 장마가 시작된다는 공식적인 기상학적 설명은, 앞서 살폈듯이 그 자체가 설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현실의 생활감각에 맞을 수도,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앞서 한반도 중부의 장마가 6월 24, 5일 경 시작된다는 설명과 7월 10일 경 시작된다는 설명 모두가 현실감 있게 들렸던 까닭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활현장의 감각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인가.

〈표 4-1〉 한반도 중부 및 그 인접지의 6·7월 1일강수량 평년값(1961~1990) ①

지역 월일	철원	춘천	홍천	원주	제천	충주	문경*	추풍령	거창*	장수	양평	이천	청주	보은	대전
6. 1	2.5	5.0	6.0	4.3	3.9	3.2	7.6	3.8	5.3	6.2	6.5	6.9	3.7	4.7	3.8
6. 2	8.2	4.5	4.4	3.5	4.2	3.4	5.6	4.3	4.7	11.4	4.1	3.9	2.9	4.0	3.7
6. 3	1.3	2.9	1.2	4.8	4.4	1.3	1.3	2.0	2.7	6.8	0.6	1.0	1.6	0.9	3.4
6. 4	2.7	1.3	0.6	2.3	1.7	2.2	2.1	2.2	6.6	1.0	0.8	1.7	1.5	2.0	2.1
6. 5	5.2	3.3	3.5	2.2	2.6	2.0	3.9	1.2	3.4	6.3	4.1	3.4	1.7	1.8	2.2
6. 6	-	1.4	3.5	4.6	4.6	4.9	4.2	1.8	2.3	0.0	3.1	5.4	4.1	3.2	2.7
6. 7	0.4	2.8	6.4	7.6	6.7	6.2	12.1	5.0	10.8	4.1	5.1	5.5	7.2	10.3	8.8
6. 8	5.8	4.4	7.1	6.1	7.6	6.0	11.0	5.6	11.1	10.8	6.1	7.8	6.0	7.4	7.3
6. 9	2.8	5.2	1.6	2.8	3.0	1.9	2.1	4.5	1.0	7.6	2.0	2.8	5.0	3.0	3.7
6.10	5.4	2.5	4.5	4.2	7.4	5.6	7.8	3.5	10.9	3.4	3.1	3.8	4.7	6.4	6.1
6.11	4.2	1.5	1.7	0.7	1.6	0.4	0.7	1.5	1.7	2.5	1.6	0.3	0.8	0.8	1.5
6.12	4.8	2.0	1.9	1.8	1.7	1.3	1.9	1.8	2.5	1.6	2.1	1.8	1.3	1.2	1.7
6.13	3.1	1.0	0.8	0.1	0.3	0.1	0.6	0.5	1.1	7.4	0.3	0.4	0.9	0.9	0.5
6.14	2.8	1.2	2.0	1.9	2.5	2.3	4.0	2.9	4.6	9.4	3.7	4.9	1.7	2.3	2.2
6.15	2.1	1.4	3.7	2.1	0.3	0.9	0.4	0.6	1.3	1.2	0.7	0.7	0.5	0.5	0.4
6.16	2.9	2.7	3.7	5.4	5.1	5.0	5.7	6.8	6.0	5.6	7.0	5.3	4.3	5.9	5.4
6.17	3.2	2.1	2.2	5.6	5.0	5.0	4.0	6.1	5.8	13.6	2.6	5.1	2.5	3.6	4.9
6.18	19.2	4.0	2.8	2.5	2.4	2.3	2.9	2.1	6.0	3.6	2.1	1.5	2.9	2.3	2.7
6.19	10.1	5.7	6.9	8.6	8.5	9.1	5.9	9.0	7.0	8.3	5.9	6.8	5.5	7.2	8.0
6.20	1.8	6.0	7.2	7.8	10.1	10.9	13.3	10.4	17.4	12.1	6.6	9.5	12.8	12.7	12.6
6.21	8.7	9.3	10.7	6.5	6.4	4.8	3.8	2.1	1.2	3.0	9.1	5.6	8.0	4.5	3.7
6.22	1.0	2.6	3.5	2.0	3.3	2.7	1.2	2.7	5.0	0.9	3.1	1.0	3.0	1.3	2.7
6.23	3.7	0.4	0.7	0.7	0.7	0.9	4.1	4.3	10.6	1.1	1.7	1.4	0.8	2.9	2.4

지역 월일	철원	춘천	홍천	원주	제천	충주	문경*	추풍령	거창*	장수	양평	이천	청주	보은	대전
6.24	3.7	7.7	10.4	7.4	7.3	5.4	6.8	5.4	9.7	12.9	7.5	6.6	3.5	6.1	4.1
6.25	13.8	19.3	19.4	16.9	22.8	17.9	25.9	13.4	21.7	24.0	20.8	23.0	15.0	23.8	16.6
6.26	12.6	10.8	10.5	7.8	8.4	10.3	6.2	4.9	4.4	15.9	8.5	6.6	8.2	6.6	7.2
6.27	4.4	5.2	5.9	7.2	3.5	5.8	5.1	3.2	4.2	18.6	7.5	5.6	4.9	3.8	5.5
6.28	0.8	4.5	3.9	2.4	4.8	2.7	2.3	5.8	2.0	11.1	5.8	4.4	6.6	3.2	7.4
6.29	6.3	5.6	5.2	5.6	8.0	6.9	7.3	4.9	3.9	11.5	4.7	7.6	10.0	8.1	8.8
6.30	6.8	7.5	7.2	9.8	7.6	7.2	9.0	9.8	2.3	6.5	5.9	7.9	12.8	6.9	11.6
7. 1	18.3	8.8	14.7	6.4	6.8	8.7	12.2	4.1	7.4	16.2	13.2	6.8	3.8	3.4	2.3
7. 2	8.7	13.4	9.8	13.9	7.0	5.7	5.9	4.6	6.3	3.0	12.6	10.0	7.0	7.3	6.3
7. 3	2.6	12.4	13.4	10.6	6.0	4.6	8.9	12.2	8.2	6.9	15.4	17.3	10.4	10.1	7.7
7. 4	4.5	11.0	9.1	17.8	8.3	7.7	8.5	11.2	9.4	13.8	8.9	8.3	8.6	9.0	11.2
7. 5	6.0	6.4	3.9	5.0	1.0	1.7	3.8	4.7	6.7	16.3	3.8	2.4	2.5	3.3	4.0
7. 6	2.6	4.4	6.4	6.4	10.1	9.1	10.4	10.6	12.5	9.1	9.4	8.7	10.3	12.0	20.5
7. 7	10.4	10.6	8.5	7.8	5.5	6.8	7.1	9.0	10.7	4.9	9.5	5.0	8.6	8.4	10.3
7. 8	13.1	16.6	10.9	8.7	5.4	6.5	4.0	4.5	5.2	8.8	14.8	12.9	12.2	8.6	8.4
7. 9	15.1	12.8	19.3	12.5	12.4	9.6	6.3	7.7	5.2	4.4	16.1	15.8	11.1	11.1	8.2
7.10	17.1	8.8	8.0	7.9	9.6	10.3	9.9	9.6	11.2	6.6	7.7	9.5	9.8	8.9	8.2
7.11	19.9	9.9	13.2	13.5	12.8	13.4	16.9	14.6	17.4	19.3	12.2	13.1	12.8	21.4	19.9
7.12	11.9	16.1	19.9	15.6	17.2	20.7	13.0	14.2	14.1	22.1	25.6	21.6	14.6	19.4	15.5
7.13	2.6	12.2	7.2	8.8	9.5	8.5	14.7	10.5	7.9	11.3	8.0	8.2	9.0	12.5	14.8
7.14	2.1	11.6	12.8	17.5	22.9	14.9	10.0	9.4	10.8	7.3	15.9	16.5	9.9	12.2	12.6
7.15	21.3	18.5	6.6	12.3	8.8	7.9	13.1	13.6	20.9	24.0	7.6	12.7	8.6	12.8	14.9
7.16	11.5	17.3	17.3	16.0	17.4	18.1	14.5	18.0	13.2	25.8	14.8	15.4	30.1	18.3	28.4
7.17	15.5	13.3	8.3	7.5	8.6	8.2	10.1	11.6	11.2	20.0	8.9	7.0	10.8	8.2	9.8
7.18	5.3	8.2	6.1	4.8	6.1	5.1	4.0	9.1	6.1	8.1	2.1	3.0	4.3	3.7	7.1
7.19	10.8	10.0	5.7	15.5	16.9	13.7	8.8	4.1	4.4	3.2	7.7	14.7	9.9	8.4	8.4
7.20	15.7	12.7	11.4	8.2	19.3	10.4	6.8	4.8	1.1	1.4	10.5	10.4	7.6	11.2	8.1
7.21	18.9	14.8	14.8	13.5	14.1	9.9	5.5	6.5	3.0	4.5	20.5	22.0	7.3	7.4	5.3
7.22	6.9	8.1	12.4	21.0	26.7	17.5	20.1	14.6	7.5	4.2	10.6	19.0	23.7	36.6	17.9
7.23	3.2	6.5	3.5	8.9	6.0	5.1	10.6	8.4	19.3	7.1	3.3	2.1	3.7	8.0	4.5
7.24	18.1	13.6	10.9	8.9	4.2	3.4	1.9	3.5	1.1	4.6	11.9	11.6	1.7	3.7	5.5
7.25	28.7	19.1	19.8	19.1	13.1	13.1	7.9	7.4	10.2	11.7	22.9	15.5	8.8	10.5	9.1
7.26	24.2	5.0	7.8	16.2	16.4	9.9	6.0	14.8	5.3	14.2	9.3	11.4	8.1	12.5	17.4
7.27	31.3	17.6	20.7	12.6	11.3	8.6	5.5	6.3	4.3	8.8	18.8	12.5	5.7	5.0	5.0
7.28	6.4	8.5	12.4	5.5	4.4	5.8	6.6	3.0	8.8	2.8	11.9	10.9	5.6	7.2	7.5
7.29	8.6	6.1	8.0	6.9	5.0	6.4	7.7	7.9	7.8	4.3	9.5	8.3	2.8	8.1	6.8
7.30	4.2	10.9	6.8	4.2	3.7	5.7	6.3	3.1	9.1	3.0	5.6	3.0	5.1	4.4	4.2
7.31	5.9	2.1	1.1	1.0	1.6	2.1	4.0	6.1	7.6	6.6	2.2	0.9	3.8	1.6	7.1

[출처: 기상청(<http://www.kma.go.kr>)>날씨정보>기후자료>평년값자료>일강수량 자료를 재정리.

*문경과 거창은 1961~1990년 기간의 7월 일평년값 자료를 구하지 못해 1971~2000년 기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표 4-2〉 한반도 중부 및 그 인접지의 6·7월 1일강수량 평년값(1961~1990) ②

지역 월일	금산	임실	남원	서울	수원	천안	부여	전주	정읍	강화	인천	서산	보령	군산	부안
6. 1	5.9	9.1	7.2	4.5	5.5	5.3	6.0	4.8	7.7	6.3	4.1	5.7	5.1	5.2	8.1
6. 2	3.1	4.9	2.1	6.7	4.9	2.4	2.9	4.0	1.9	6.7	6.9	3.2	2.5	2.3	1.3
6. 3	1.2	0.7	1.0	2.8	2.6	3.0	0.5	2.1	0.3	1.7	1.7	1.2	1.0	1.4	0.4
6. 4	2.2	4.2	3.3	2.6	1.6	1.2	1.9	3.0	4.9	1.3	1.9	1.4	2.0	2.2	5.5
6. 5	3.2	2.6	1.3	2.6	2.0	3.2	3.2	1.6	2.2	1.2	2.0	3.8	2.4	1.9	2.4
6. 6	3.1	3.5	6.2	1.7	1.6	3.5	3.1	1.8	2.1	2.5	1.0	2.1	3.1	2.0	2.4
6. 7	8.9	14.3	10.4	2.4	3.1	6.8	7.8	6.1	9.4	2.8	1.5	4.5	7.0	6.6	9.9
6. 8	10.8	9.5	10.1	4.8	4.2	8.6	12.4	6.2	7.4	9.8	4.4	8.0	8.0	7.1	8.6
6. 9	2.9	2.6	2.0	3.4	4.3	1.6	3.8	5.8	4.9	2.7	3.4	4.2	2.3	7.6	5.8
6.10	7.5	8.5	7.6	3.0	2.4	5.1	6.4	5.1	4.8	2.2	2.2	3.9	4.9	5.6	5.4
6.11	1.3	1.3	1.5	1.0	1.6	0.5	1.0	1.8	1.0	0.3	1.5	1.6	0.5	2.4	1.2
6.12	0.9	0.8	1.5	1.7	2.1	1.0	0.6	1.0	0.4	2.1	1.6	1.6	0.5	1.0	0.6
6.13	1.7	2.1	2.0	0.8	0.1	0.3	1.0	0.4	0.5	0.6	0.2	0.6	0.3	0.7	0.7
6.14	2.0	5.1	4.7	4.0	3.7	3.3	2.7	3.1	5.4	4.2	3.0	2.8	2.7	2.6	3.6
6.15	0.7	1.8	0.8	1.7	0.9	0.7	1.0	0.3	1.8	1.7	1.0	1.9	0.5	0.1	0.1
6.16	5.6	3.5	3.8	3.6	6.0	6.0	5.9	3.4	3.5	5.9	4.0	4.2	6.6	5.7	3.2
6.17	9.6	6.2	7.3	2.5	2.6	5.7	3.9	6.3	5.4	1.4	1.6	2.1	3.0	5.0	5.5
6.18	3.1	4.4	5.2	5.4	1.9	2.7	4.6	1.6	1.9	9.5	4.5	2.1	3.5	3.7	4.0
6.19	9.2	7.2	8.4	4.3	5.4	10.1	8.7	11.6	8.7	9.1	4.0	7.5	8.6	7.6	10.3
6.20	18.6	13.7	19.9	6.1	5.3	10.1	11.9	9.6	11.3	7.5	3.8	6.5	7.4	7.8	9.9
6.21	2.2	5.5	2.9	5.7	2.8	4.0	4.5	2.8	2.5	7.3	4.2	2.5	4.1	2.2	1.7
6.22	2.6	3.3	6.4	8.3	1.5	0.9	3.3	4.1	3.6	2.4	7.7	0.5	1.6	2.4	2.3
6.23	7.5	10.7	15.7	0.5	0.6	6.7	2.7	7.2	11.0	2.1	0.9	2.8	2.3	4.8	9.9
6.24	7.4	15.0	10.9	6.8	4.9	3.5	4.1	7.4	12.6	13.4	6.4	6.0	5.7	4.6	9.2
6.25	23.6	19.0	17.4	17.9	18.3	16.6	24.0	16.8	12.8	16.2	12.0	12.0	16.6	15.9	22.5
6.26	4.1	5.2	3.7	6.3	5.1	8.8	6.2	5.0	3.6	4.5	3.4	4.4	12.8	5.9	4.2
6.27	4.2	6.0	3.9	5.0	8.6	6.5	5.4	5.0	5.5	4.3	4.8	2.0	6.7	4.7	2.9
6.28	2.4	3.4	5.9	6.3	3.8	3.0	2.1	7.2	2.7	2.1	4.0	3.8	2.4	4.9	0.8
6.29	6.1	6.0	7.7	7.2	7.3	5.8	7.9	5.0	4.5	4.9	4.9	4.2	3.3	5.3	5.0
6.30	5.0	4.1	5.2	4.3	6.6	7.9	6.9	6.8	5.2	5.3	4.9	7.1	6.3	7.1	2.9
7. 1	3.3	5.9	5.4	10.6	9.0	5.4	3.2	5.4	6.0	8.9	8.9	6.8	5.0	2.8	5.9
7. 2	5.0	4.9	2.9	9.6	8.9	12.2	8.1	3.8	3.4	13.3	7.1	9.3	8.3	3.9	3.5
7. 3	13.3	10.9	16.7	14.1	12.7	6.3	4.8	10.5	9.9	10.1	10.3	11.9	5.0	10.1	11.2
7. 4	10.3	8.9	6.5	11.4	17.8	12.8	7.4	13.3	12.4	2.0	7.8	11.1	5.4	7.1	9.3
7. 5	4.7	6.3	13.2	3.5	3.0	2.6	6.1	7.0	6.6	5.8	3.6	3.4	3.2	3.5	7.7
7. 6	20.9	12.3	11.1	6.4	7.5	7.8	11.5	8.1	11.6	4.2	6.8	6.2	6.2	7.4	9.3
7. 7	10.9	15.2	10.9	11.0	6.7	4.4	10.6	14.7	9.1	8.5	7.5	5.3	10.3	8.5	11.5
7. 8	4.9	4.9	4.8	12.4	15.4	10.9	9.1	7.4	5.3	18.1	13.1	19.5	14.6	8.8	5.4
7. 9	4.5	5.1	7.6	11.9	10.6	12.7	11.7	7.1	5.0	13.1	8.6	8.7	10.6	5.2	3.9
7.10	7.2	3.5	5.1	10.7	9.9	8.8	9.3	7.5	3.9	13.1	9.4	8.4	13.5	8.1	5.5
7.11	20.9	18.1	18.4	10.1	11.3	16.3	22.5	15.8	20.9	11.0	8.4	12.9	21.7	15.3	20.6

지역 월일	금산	임실	남원	서울	수원	천안	부여	전주	정읍	강화	인천	서산	보령	군산	부안
7.12	17.0	16.2	17.0	17.0	19.1	21.3	26.3	18.6	14.3	18.6	15.4	19.4	25.9	19.4	16.8
7.13	10.3	6.9	13.2	6.7	7.6	8.0	10.6	5.8	6.1	8.6	5.7	6.0	6.6	6.5	6.3
7.14	8.1	14.4	21.5	18.1	14.0	14.3	15.6	9.7	10.4	13.2	15.6	11.6	14.1	11.9	13.2
7.15	16.8	12.1	16.1	17.3	13.5	8.5	15.2	12.0	13.5	16.1	11.7	15.1	16.8	12.1	8.5
7.16	11.8	8.1	17.4	17.8	23.2	14.8	19.8	13.5	8.5	18.0	14.7	18.0	10.7	14.3	10.6
7.17	14.0	11.3	12.3	27.6	15.4	5.8	7.9	16.1	13.0	2.2	20.7	5.0	10.1	13.0	11.0
7.18	11.0	8.3	7.3	7.8	4.6	3.9	5.6	12.6	7.8	2.8	4.2	9.7	4.0	9.4	12.1
7.19	3.9	7.6	6.1	11.6	8.4	12.7	9.0	8.2	7.3	6.1	11.4	10.0	10.0	7.6	6.7
7.20	3.4	2.1	1.3	18.0	13.2	2.3	3.8	5.2	1.0	9.0	12.0	5.0	1.8	1.3	2.8
7.21	7.6	5.3	5.7	12.5	12.4	13.9	5.1	6.3	4.6	8.9	7.5	7.0	4.1	3.6	4.2
7.22	12.7	11.8	8.8	5.3	9.5	16.6	37.7	12.0	10.9	8.6	5.3	9.1	26.4	20.6	14.3
7.23	6.4	11.0	14.3	8.5	7.9	2.5	3.1	8.1	8.1	2.5	6.2	1.0	1.2	3.0	5.7
7.24	7.4	2.2	2.0	12.3	5.7	0.9	2.0	3.2	3.3	29.4	5.8	1.8	1.7	1.6	3.1
7.25	7.7	15.9	17.3	16.5	10.2	7.7	6.6	12.3	14.4	14.2	7.8	5.2	6.4	9.9	9.0
7.26	16.3	10.4	8.5	10.7	11.9	10.1	11.0	13.1	12.9	4.1	9.0	10.5	5.8	7.9	19.8
7.27	8.1	4.6	7.1	17.5	9.4	6.2	6.4	4.2	5.1	21.3	15.7	8.7	5.4	8.5	5.0
7.28	3.7	5.4	7.7	8.3	11.5	13.3	13.2	3.7	2.8	7.8	8.5	10.1	10.6	10.5	5.2
7.29	9.9	10.5	6.2	12.0	5.9	5.4	8.4	5.6	8.3	7.8	8.3	4.5	8.4	7.7	8.6
7.30	6.0	10.3	11.3	8.1	10.0	1.3	5.1	4.2	8.4	5.8	4.7	2.4	2.1	2.5	5.9
7.31	0.9	6.9	6.2	4.1	2.6	2.7	1.2	3.3	2.8	1.2	3.6	0.8	0.6	2.0	4.4

출처: 기상청(<http://www.kma.go.kr>)>날씨정보>기후자료>평년값자료>일강수량 자료를 재정리

위 <표 4-1>과 <표 4-2>는 한반도 중부 및 그 바로 남쪽 지역에서의 1961~1990년 기간 1일강수량 평년값을 정리한 것이다.¹⁹⁾ 30년간의 평년값 자료로부터 중부지방 및 그에 인접한 지방에서 강수 그리고 장마가 전개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6월의 강수량양상을 보면, 충북 보은, 충남의 금산과 부여, 경북의 문경과 거창, 전북의 장수, 임실, 남원 등 내륙의 산간지에서는 망종(양력 6월 6, 7일경) 무렵 다른 곳보다 먼저 다소 뭉쳐서 비가 내린다. 여기에 군산과 부안 등 서해남부연안의 반도지역을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는 장마와는 무관한 강수현상이다. 이어서 하지(양력 6월 21, 22일경) 전삼일에 해당하는 6월

19) 이 표는 앞 줄고, 264-265쪽에서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13개 지점의 자료를 정리한 것을 다시 충남, 충북 및 전북·경북 북부 지역을 포함하는 30개 지점으로 확장한 것이다. 30년간의 평년값 자료로부터 비가 일정량 이상 오는 날들과 비가 거의 오지 않는 날들을 구별하기 위해 3일 연속해서 내린 비의 양(즉 앞 2일과 당일의 강수량을 합한 양)이 20mm가 넘는 날에는 해당날짜의 강수량을 굵은 글씨로, 당일만의 강수량으로 10mm를 넘는 날은 셀의 음영처리로 표시하였다.

19, 20일경 다시 한 번 뭉쳐서 비가 내린다. 강수지역은 망종 무렵 비가 뭉쳐 내렸던 내륙산간에, 철원, 제천, 충주, 청주, 대전, 천안, 전주, 정읍 등 이를 둘러싼 주변지역이 가세한 양상이다. 이어서 23, 24일 다시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25일에는 중부이남 전역으로 강수지역이 확대된다. 공식적인 기상통계에 나타나는 장마의 시작일로, 하지 후삼일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그러나 이후 뭉쳐서 내리는 강수현상은 근 일주일의 휴지기를 거치고, 7월 들어서야 다시 중부지역으로 확산된다.²⁰⁾ 이것이 중부지역에서 본격적인 장마철의 시작으로, 이후 간간이 2, 3일 썩의 휴지일을 두면서 근 한 달간 한반도 전역에 비를 뿌리게 된다. 앞서 거론된 바, 두 단계에 걸친 장마 도래의 실상이다.

Ⅲ. 반건조 자연환경 아래 농업기술의 기본성격

—논발병행영농의 생태적 의의

그렇다면 이와 같은 강수량상의 농업기술사적 의의는 무엇인가. 이는 여러 면에서 검토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주로 두 가지 점을 강조하기로 한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많은 논자들이 지적하여 왔듯이, 5월의 봄가뭄이 6월 하순까지 이어짐으로써 이앙법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모내기철에 각 논에서 적절한 수량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이다.

5월의 건조기는 때로 크게 발달하여 6월에 이르러도 쇠퇴하지 않아, 이로 인해 우기의 지연을 초래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 6월의 강우는 벼농사 상 가장 긴요한 시기에 이르므로, 이 성쇠 혹은 늦고 빠름은 농가에서 가장 우려하는 바이다. 고래 조선 역사상 보이는 기우(祈雨)의 기사는 완전히 이 건조기가 쇠퇴하지 않음에 따른 것으로, 6월에 들어도 여전히 강우를 볼 수 없을 때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점차 강우를 보게 됨에 이르러 기우의 효험으로 여김도 실은 건조기 뒤에 우기가 도래함이 당연한 순서인 것으로, 단지 시기의 늦고 빠름이 있을 뿐이다.²¹⁾

20) 이 기간 내내 비가 내리는 전북 장수 지역은 이 점 예외적이다.

21) 平田徳太郎, 『朝鮮の氣象』(仁川: 氣象講話會, 1919), 67쪽. 저자인 히라타 도쿠타로는 1880년 일본 이와테현(岩手縣) 출신으로 도쿄제대 실험물리학과를 졸업하였고, 일본 중앙기상대와 청국 양강우급사범학당을 거쳐 1908년 1월 통감부 관측소에 배속된 후 1917년 조선총독부 관측소장에 취임하였다.

조선의 우기는 내지보다도 2, 3주 늦는 것이 보통이어서, 대개 6월 하순부터 7월 하순경까지로, 남선이 약간 이르고 서북선(西北鮮)이 약간 늦다. 6월의 적기이앙이 곤란하고 가뭄에 시달리는 해가 매우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조선에서 이앙적기는 서북선에서는 6월 상순, 중선은 6월 상중순, 남선은 6월 중하순이다. 서북선지방의 적기인 6월 상순경에는 강우량이 심히 적고 우기는 6월 말경부터 7월말이나 8월초에 걸치므로, 매년 적기이앙이 곤란한 상황이다.²²⁾

주지하듯이 1970년대 이전의 벼농사에서 모내기에는 빠르면 망종 무렵, 대개는 6월 15일경 시작되어, 하지를 전후한 시기에 마무리가 되는 것이 정상적인 이앙 일정이었다.²³⁾ 그러나 한반도의 고질적인 봄가뭄은 이러한 정상적인 일정에 어려움을 초래하기 마련이었다. 앞의 인용문에서 도쿄제대 출신의 기상학자인 조선총독부 관측소장은 모내기철의 가뭄에 기우제를 지내는 조선인의 어리석음을 통탄하고 있다. 그러나 뒤의 선미협회(鮮米協會) 이사가 적은 인용문에도 나타나듯이 그 근본원인이었던 모내기철 가뭄은 일제말기에 이르도록 근본적인 해결을 보지 못한 채 해마다 되풀이되다시피 하고 있었다. 모내기철의 가뭄은 일찍부터 이앙법의 이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조선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이를 금압하는 정책을 쓰게 되었던 자연환경적인 배경이었다.²⁴⁾ 일제시기에 들어서도 수리안전답과 수리가 불안정한 재래식 관개답을 합친 면적이 30%를 넘지 못한 것(1925년 23%, 1930년대 말 28%)이 조선의 현실이었다.²⁵⁾ 나머지 70% 이상의 천수답은 모내기철 가뭄이 닥치면 꼼짝없이 비 오기만을 기다려야 했다. 하지 전삼일 후삼일에 비가 오지 않으면, 모내기의 적기를 놓친 채 7월 들어 장마전선이 재복상을 해야 비로소 이

22) 菱本長次, 『朝鮮米の研究』(東京: 千倉書房, 1938), 30쪽. 저자인 히시모토 쇼지는 조선 총독부 기수(技手)와 기사(技師)를 거쳐 사단법인 선미협회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1944년 선미협회의 해산 당시 청산인을 맡았다.

23) 앞 줄고, 235-250쪽. 복수의 일기자료 분석을 토대로 김건태는 16세기 말에는 소만과 망종 사이에 이앙하였지만 17세기 전반에는 망종과 하지 사이에 이앙이 이루어졌다면 서, 이 변화가 17세기 전반에 나타난 저온현상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김건태, 『조선시대 양반가의 농업경영』(역사비평사, 2004), 136쪽. 유사한 변화에 대해 염정섭은 모내기철의 가뭄에 대처하기 위해 이앙시기를 늦추는 농업기술과 벼 품종이 발달한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염정섭, 앞 책, 186-190쪽. 원인 여하 간에, 적어도 17세기 이후의 이앙시기가 이와 같았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24) 김용섭, “조선후기의 수도작기술: 이앙법의 보급에 대하여” 『아세아연구』 7권 1호 (1964); 『조선후기 농업사연구(II): 농업변동·농학사조』, (일조각, 1970), 2-39쪽; 염정섭, 앞 책, 155-178쪽.

25) 안승택, 『식민지 조선의 근대농법과 재래농법: 환경과 기술의 역사인류학』(신구문화사, 2009. 이하 앞 줄저), 122쪽.

양할 수 있었다. 5월말~6월 상순 중에 매우/장마전선이 도래하는 일본열도의 벼 농사와는 판이한 양상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러한 모내기철의 가뭄이라는 강수환경이 논농사에서 전면적인 실농(失農)의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논농사의 불안정성이라는 요인 자체가 논발혼합 또는 논발병행의 영농형태를 필연적인 것으로 만든다는 점이다. 논농사에 중심을 두고 발전한 농업기술체계—가령 식민지기 도입된 일본근대농법이 포함되는—와는 서로 다른 농업생산의 양상이 나타나는 까닭이다.²⁶⁾ 이는 무엇보다도 가뭄으로 인해 지연되는 모내기철이 밭 이모작 농사에서 앞작물을 수확하고 뒷작물을 파종하는 그루갈이(根耕)의 시기와 중첩된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²⁷⁾ 도쿄제대 농학부 출신의 기사(技師)로 조선총독부 농사시험장 남선지장장을 지낸 바 있는 한 농학자의 글을 보도록 하자. 논발농사를 병행하는 농민들이 가뭄으로 모내기가 늦어지는 조건 아래에서 약간의 비가 오자, 모내기보다는 밭에서의 보리 베기와 그루갈이 콩 파종을 하러 달려가는 모습을 신기해하며 바라보고 있다.

논에서는 쌀이 주요한 작물이므로 밭의 경우와 달라 벼 외에 같은 시기에 논에서 재배하는 작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쌀을 증산하고자 하는 경우 미작에만 전념하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시겠지만, 농가의 실정으로 보면 의외로(실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벼 농사가 밭의 보리농사, 콩농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잘들 아시다시피 논벼는 적기를 놓치지 않고 빨리 이앙하는 것이 증수의 한 요체여서 마침 비가 내리면 극력 모내기를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만, 당장 올해 7월초 무렵 저는 재미있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도하고 있는 논 경작농가가 이앙시기가 이미 도래하여 하루라도 빨리 심지 않으면 안 되어 빨리 빨리 하고 독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전혀 모내기를 시작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사람을 시켜서 농가를 조사해보니, 모든 농가가 하나같이 보리를 벤 자리에 콩 심는 일[즉, 그루갈이]²⁸⁾에 혈안이 되어있었습니다. 이것이 대체 어찌된 일인가 생각해보니, 이 지방의 농가가 종래 지켜온 농법으로 보면 논벼는 아직 4, 5일 이앙이 늦어도 커다란 감수(減收)가 되지 않지만, 보리 뒤의 콩 파종은 하루도 유예가 없다는 것입니다.²⁹⁾

26) 이러한 입장에서의 한국농업사 선행연구로는 이호철, 앞 글을 참조할 것.

27) 한국농업사의 중요 논점이기도 한 그루갈이(根耕法)와 대우치기(代耬法, 間種法, 間作法) 등 재래 밭이모작 기술의 내용과 전개, 성격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는 상론을 피한다. 간략한 리뷰로는 앞 줄저, 372-389쪽을, 분석으로는 같은 책, 231-291쪽을 볼 것.

28) 이하 인용문 안의 꺾은 괄호[]는 원문을 보완하기 위해 필자가 부기한 내용임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한다.

29) 和田滋穂, “農作物の綜合的増産に就て”, 『朝鮮農會報』 14권 9호 (1940), 3-4쪽.

종래 조선후기 이양법의 확산이라는 사회현상에 대한 설명은 제초노동력 절감과 쌀 생산량 증대, 특히 전자를 중심으로 논농사기술의 생산성 증대라는 지평 안에서만 설명되는 경향이 있었다.³⁰⁾ 이에 대해 근래의 논의는 다른 요인, 즉 한정된 노동력의 총량을 논과 밭에 효율적으로 분배함으로써 쌀 외에 면화, 연초, 조, 콩 등으로 영농의 다각화를 꾀한 결과—결과적으로 논밭농사를 합친 전체 노동량은 줄지 않는다—라거나,³¹⁾ 건조기후에 적합한 건조이양농법의 발전과 함께 천수답(봉천답)과 점토질답 등 이양법 도입이 불가피한 땅의 논으로의 지목변환—소위 번답(反畓)에 의한 하등답의 증대—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³²⁾ 이런 입론들은 지극히 정당한 것으로 그 의의가 크지만, 결국은 일종의 상업적 농업의 발흥과 관련된 설명이라는 점에서,³³⁾ 자연환경조건의 규정 아래 전개되는 논밭농사의 본성적으로 불가분한 결합관계라는 차원에서 두 설명이 보완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모내기철의 가뭄이 만연한 환경조건 아래에서 번답의 확산은 한편으로 이양법의 도입을 불가결하게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논을 경작하는 농민이 논농사에서 실농할 위험성 또한 증대시킨다. 따라서 반건조지대에서의 이양법 보급과 논농사 증대는 아울러 이러한 실농의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밭농사의 증대를 또한 요청하게 된다. 다음 두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적절히 드러내는 설명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풍속이 수전을 답이라고 하는데, 전답이 반씩 섞여 있는 땅(田畓參半之地)은 홍수든 가뭄이든 전과 답에 함께 해를 입히지 못하여 고로 완전히 흉년이 드는 해가 늘 적습니다. 반면 골에서는 즉 홍수로 흉년이 들고 벌에서는 즉 가뭄에 흉년이 드는데, 그러나 땅이 비록 골이라도 어찌 넘치도록 비옥한 곳이 전혀 없겠으며, 땅이 비록 벌이라도 어찌 높고 파삭한 곳이 전혀 없겠습니까. 특히 산골의 농부는 즉 조농사에 익숙하고 벌판의 농부는 즉 벼농사에 익숙한데, 그것을 병행할 줄은 모릅니다. 신이 이에 생각하고 헤아려보니, 사는 곳은 벌입니다. 그러나 그 조금 높은 곳으로 나아가서 불을 놓아 조를 뿌리고, 그 조금 습한 곳으로 나아가 밭벼를 이양하며, 모래땅은 즉 동두와 청포를 심고 진땅은 즉 강직과 당을 심으며, 기름진 땅은 메밀밭으로, 건실한 땅은 목화밭으로 하여, 그 적절한 바를 살피 각 종자를 시험하면 즉 대개

30) 김용섭, 앞 글.

31) 김건태, 앞 책, 113-158쪽.

32) 엄정섭, 앞 책, 179-206쪽.

33) 상업화 유인이 큰 작물인 면화·연초·콩의 경작확대는 비경작지역과의 교역을, 번답의 활성화는 미곡수요의 증대에 따른 사회경제적 이득 및 지가 앙등 등을 노린 결과라는 점에서, 양자 모두 일종의 농업의 상업화와 결부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루는 것이 많고 이루지 못하는 것이 적어, 가물면 즉 조밭에 의지하고 물이 나면 벼밭에 의지할 것입니다. 산과 벌에서 함께 얻는 일은 있어도 가뭄과 홍수의 해를 함께 입는 일은 없으니, 이는 신이 이미 시험해본 한 가지입니다.³⁴⁾

수전의 곡식은 공이 많이 들지만 정작 일꾼의 먹을거리와는 그다지 상관이 없다. 밭은 그 적합한 바에 따라 [이모작을 함으로써] 두 그루를 수확하니 이익이 배가 된다. 고로 농가는 마땅히 밭으로써 힘을 만하다.³⁵⁾

전자의 인용문은 지역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농서를 지어 올리라는 정조의 윤음에 따라 경기도 광주에 사는 최세택이 지어올린 상소문의 일부이다. 논과 밭 어느 일변도로 나가기 곤란한 반건조지대에서 전답참반지지(田畝參半之地), 즉 논과 밭이 반씩 섞인 땅의 형태로 아울러 경영하는 것이 지니는 생태적 합리성을 적절히 설명하고 있다. 땅이 골짜기라도 반드시 비옥한 곳이 있으니 이를 논으로 만들고 땅이 벌이라도 반드시 파삭한 곳이 있으니 이를 밭으로 만들라는 설명은, 시대조류를 따라 신규로 논을 개간한 자들에게 재해를 버텨내려면 아울러 밭도 일구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는 지침이 된다. 후자는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실용적 농서로서 유증림이 지은 『증보산림경제』(1766)로부터의 인용이다. 여기에서는 심지어 논은 공은 많이 들지만 정작 일꾼들의 먹을거리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까지 하고 있다. 이어서 밭 이모작의 유용성을 제시하고 있으니, 이는 앞서 일 본인 농학자가 신기해하며 기록했던, 가뭄 끝의 초여름 비에 논이 아니라 밭으로 달려갔던 농민적 합리성의 역사생태적인 계보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가뭄으로 지연되고 있는 모내기 못지않게 밭의 보리베기와 그루갈이가 시급함은 조선 초기 농서에서도 이미 확립되어 있던 기본적인 인식이었다. “보리와 밀은 신구(新舊) 간의 식량을 잇는 것으로 농가에서 가장 시급하다. … 농가의 바쁜 바는 보리보다 더한 것이 없다. 옛말에 이르기를 보리베기는 불끄기와 같으니 만약

34) 『應旨進農書(日省錄抄)』 「己未四月 前僉知崔世澤疏」: “東俗以水田爲畓 而田畓參半之地 水旱不能爲之並害 故歉年常小 而在峽則歉於於水 在野則歉於旱 然而地雖峽也 而豈必全無衍沃處也 地雖野 而豈必全無高燥處乎 特以峽農則狃於種粟 野農則狃於種稻 而不知其并行也 臣於是 參酌而商量 居則野也 而就其稍高 而種之火粟 就其稍濕 而移之山稻 沙土則種之以東豆與菁浦 泥則種之以江稷與糖 牟麥於膏腴之地 木花於堅實之地 相其所宜 試之各種 則蓋亦成者多 而不成者少 旱則資於粟田 水則資於稻田 有山野之兼濟 而無水旱之並害 此臣已驗者一也.”

35) 『增補山林經濟』 卷之二 「治農」 農家要務 一: “水田之穀功多 而不甚關於役夫之食 旱田隨其所宜 兩根收穫 利益倍焉 故農家當以田爲務可也.”

조금만 늦어지고 게으르면 마침내 재상(災傷)을 입을 것이다.”³⁶⁾라고 적은 『농사직설』(1429)의 설명이 이를 보여준다. 보리가 신구 간의 식량을 잇는 곡식이라는 점은 실은 동아시아 세계의 오랜 상식으로, 6세기 중엽의 중국 농서인 『제민요술』도 『예기』의 「월령」편에 대한 정현(鄭玄)의 주를 인용하여 “보리란 끊어진 것을 이어 궁핍을 넘기는 곡식이니…”³⁷⁾라고 적고 있었다. 보리베기를 불을 끄듯 하라는 부분 역시 원대 중국의 농서인 『농상집요』(1273)을 옮긴 것이다.³⁸⁾

왜 보리를 베는 일을 불을 끄듯 서둘러야 했을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리수확이 늦으면 곧이어 우기가 닥치기 때문이었다. 아래는 이와 관련하여 『농상집요』의 서술을 인용한 『한정록』과 『색경』의 구절인데, 그 인용의 방식에 따라 음미할 바가 있으므로 잠시 보도록 하자.

맥류가 누렇게 익었을 때 하늘이 맑은 때를 좇아 시급히 거두어들이기에 착수한다. 대개 5월 농가의 분주함은 누에치기와 보리농사만한 것이 없다. 옛말에 이르기를 보리 베기는 불끄기와 같다고 한 것은 늦어서 비를 만나 재상을 입는 일을 두려워하는 것이다.³⁹⁾

보리가 익어가며 푸른빛을 띠게 되면 한쪽 반을 수확하고 모두 [누렇게] 익으면 [나머지] 한쪽 반을 수확한다. 만일 지나치게 익으면 즉 내다버리는 것이다. … 한 번 구름 끼어 비를 만나면 즉 재상을 입으니 농가의 분주함을 다툼이 누에치기와 보리농사에 버금가는 것이 없다. 옛말에 이르기를 보리 베기는 불끄기와 같다고 하였다.⁴⁰⁾

36) 『農事直說』 「種大小麥附春麴」: “大小麥 新舊間接食 農家取急 … 農家所忙 無過於麥. 古語曰 取麥如救火 若少遲慢 終爲災傷.”

37) “鄭玄注曰 麥者 接絕續乏之穀…” 가사협, 구자옥·홍기용·김영진·홍은희 역, 『제민요술』 (한국농업사학회, 2007), 148쪽. 번역원문은 한국농업사학회 번역본을 참고하고, 번역문은 “춘궁기를 넘기게 하는”이라고 의역한 번역본 대신 필자가 직역 투로 개역한 것이다.

38) 『農桑輯要』 卷2 「大小麥」: “農家忙併 無似蠶麥 古語云 收麥如救火 若少遲慢 一值陰雨 卽爲災傷 遷延過時 秋苗 亦誤鋤治.”

39) 『閑情錄』 卷之十六 「治農」: “收麥麥黃熟時 趁天晴 着緊收割. 盖五月農忙 無如蠶麥. 該云收麥如救火 遲恐雨水災傷.” 원문의 “該云”은 “語云”의 오키로 보인다. 아래 각주 40 인용원문에 탈락된 “收”를 보완한 것과 함께, 이는 익명의 논문심사자로부터 지적을 받아 고친 것이다. 이를 포함하여, 이 논문이 보다 완성도 높은 것이 되도록 조언을 주신 모든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40) 『穡經』 卷上 「大小麥」: “麥熟帶青 收一半 合熟收一半 若過熟 則拋費 … 一值陰雨 則爲災傷 農家忙併 無似蠶麥, 語云[收]麥如救火.”

두 농서는 모두 보리베기가 조금만 늦으면 우기를 만나 보리가 쓰러져 못 먹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후자 『색경』은 그것이 두려운 나머지 다 익기도 전 여전히 푸른빛이 돌고 있을 때 미리 반을 수확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까지 적었다. 이 역시 『농상집요』의 구절—그 자체 역시 원대 농서인 『한씨직설』로부터의 인용이었던—을 통째로 인용한 것이다.

이들 서술이 모두 『농상집요』로부터의 인용이라는 점은, 이들이 어떠한 문제의 식으로부터 이들 농서를 인용하여 자신의 농서를 편찬하고 있었는지 짚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앞의 인용문이 실린 『한정록』은 허균에 의해 17세기 초(1610~17년 사이)에 편찬된 것이다. 이 중 해당 구절이 수록된 「치농문」은 명대(明代) 중국의 농서인 『도주공치부기서』의 발췌본이라고까지 평가되니, 이는 주로 중국 강남 논농사지대의 농업생산·경영의 도입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⁴¹⁾ 특히 『한정록』의 보리농사 관련서술은 밭보리가 아닌 논보리 재배만을 염두에 둔 것으로,⁴²⁾ 한반도에서 그 적용범위는 논에서 벼-보리 이모작이 가능한 남부 일부지역으로 제한된다. 반면 후자의 인용문이 수록된 『색경』은 17세기 후반(1676~89년 사이) 박세당에 의해 편찬된 것인데, 『농상집요』를 저본으로 삼고 『제민요술』(6세기 중엽) 등을 참고하면서 이들 농서가 체계화하고 있는 중국 화북지방의 밭농사기술을 수용하려는 성격을 지녔다.⁴³⁾ 『도주공치부기서』—『한정록』의 방식과 달리 『색경』이 『농상집요』의 보리수확 관련 서술을 보다 충실히 옮기고 있는 것은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한정록』의 저술 당시 허균이 부안, 함열(현 익산), 태인(현 정읍) 등 전북지역을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 『색경』 저술 당시 박세당이 경기도 양주에 우거하고 있었던 것은, 이들의 상이한 문제의식의 기반에 서로 다른 지역적 환경이 놓여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보리수확 관련 『농상집요』의 인용은 공통적으로 “(보리수확이) 늦어지면 새로 심을 가을보리 다스리기까지 그르친다.”⁴⁴⁾는 원문의 구절을 생략하고 있다. 『농상집요』가 밭에서의 보리 일모작을 전제하는 반면,⁴⁵⁾ 허균의 경우 벼-보리 이모작 논에서의 보리수확에 이은 벼의 이앙, 박세

41) 김용섭, 『조선후기농학사연구』 (일조각, 1988), 117-120쪽.

42) 같은 책, 123-124쪽.

43) 김용섭, 앞 책 (1970), 273-274쪽; 김용섭, 앞 책 (1988), 198-205쪽.

44) 주 38 참조.

45) 『농상집요』는 가을보리의 파종시기로 토박한 밭에서는 백로(양력 9월 9일경), 중간 정도의 밭에서는 추분(양력 9월 23일경), 비옥한 밭에서는 추분 10일 후를 제시하며, 보리,

당의 경우 밭에서의 보리수확에 이은 뒷그루 작물의 파종이라는 현실이 이러한 생략의 배경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는 밭에서 보리베기가 시급해지는 배경에 중국과 다른 조선농업만의 고유한 특징이 한 가지 더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조선에서는 『제민요술』이나 『농상집요』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그루갈이 등 밭 이모작 농법이 성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작업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콩 등 뒷그루 밭작물의 숙기를 보장할 수 있었다. 『농사직설』이 그루갈이에 의한 콩의 파종과 관련하여 “보리와 밀을 베고 그 뿌리를 재빨리 갈아엎는 것이다.”⁴⁶⁾라고 한 것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다. 보리수확에 이은 신속한 뒷그루 작물 파종은 반건조 자연환경 아래에서 밭의 습기를 최대한 지키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앞그루 작물 수확 후 땅속에서 노지로 이어진 모세관들이 일광에 노출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수분의 증발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⁴⁷⁾

한편 늦어지는 모내기보다 더 급한 밭에서의 보리베기와 그루갈이 파종으로 달려갔다고 해서 마냥 밭농사에만 매달릴 수 없다는 데에 또한 논밭병행영농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농사직설』의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17세기 이후 논농사에서 이앙법이 일반화한 데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난점이었다. 이는 또한 천수답이 만연한 조건 아래 봄가뭄으로 모내기가 지연되기 일췌였던 반건조지대 자연환경에 의해 규정되는 난점이기도 하였다. 보리의 뿌리가 끊어진다는 망종 이후 15~20일을 경과하여 이루어지는 보리베기 및 그루갈이와, 가뭄으로 인해 지체되는 모내기 작업의 시기가 겹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밭농사 작업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는 방법을 찾아야했다. 1800년경 수원 사람 우하영에 의해 작성된 『천일록』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농민들의 방식을 엿볼 수 있다. 가령 밭을 사용하여 두둑 위에 콩을 심어나가는 족종법(足種法)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도 “세 가지 농사를 하는 때는 하루의 노동력 내기도 극히 어려우니 [족

밀과 콩, 팥, 조 모두에 대해서 밭 이모작 농법은 전제되어 있지 않다.

46) 『農事直說』, 「種大豆小豆菽豆」: “刈兩麥 旋耕其根也.” 여기에서 ‘旋耕’을 ‘재빨리 갈아엎다’라고 해석한 것은 미야지마 히로시의 해석을 따른 것이다. 宮嶋博史, 앞 글, 84쪽. ‘旋’은 ‘돌다’라는 뜻과 함께 ‘빠르다’는 뜻이 있다. 그루갈이에 의한 파종은 네 번 또는 여섯 번 빙글빙글 돌며 쟁기질을 하여 만든 두둑 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旋耕’은 ‘돌면서 쟁기질하다’의 뜻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그루갈이를 위한 밭갈이가 ‘재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점 역시 분명하며, 따라서 어느 쪽으로 풀든 틀린 해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일단 ‘재빨리’라는 미야지마의 풀이를 따랐다.

47) 朴泳孝, “農業改良에는 溫故而知新이 必要하다”, 『朝鮮農會報』 2권 1호 (1928), 3쪽.

종 대신] 씨를 흠어 뿌리면 두 사람이 하루 하는 노동력을 아낄 수 있다.”⁴⁸⁾거나, 근경법을 대신하는 대우법에 의한 밭뒷그루 파종작업을 설명하면서 “또한 세 가지 농사로 극히 바쁜 때 그루같이(근경)에 의한 공력을 덜 수 있다.”⁴⁹⁾고 적은 것이 그러한 예이다. 이 ‘세 가지 농사를 하는 때’(三農之時) 혹은 ‘세 가지 농사로 극히 바쁜 때’(三農劇忙之時)에서 말하는 세 가지 농사가 곧 논에서의 늦어진 모내기, 밭에서의 앞그루 수확, 뒷그루 파종을 말한다.

현지조사를 통해 만난 경기남부의 농민들 역시 이 시기 농사일의 분주함을 설명하기에 다름이 없었다. 이들은 이렇게 6월 하순에서 7월 초에 걸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기를 삼그루판 혹은 삼농이라고 부르면서, 그것이 늦은 모내기—소위 마냥[晩移秧 또는 晩秧]—와 밭앞그루의 수확, 밭뒷그루의 파종을 하는 시기이며, 누에를 치는 사람은 한 그루가 더 있다는 설명을 곁들여나갔다. 그런 의미에서 삼그루판은 반건조지대의 기후특성으로 인하여 논농사와 밭농사 어느 한쪽으로든 편중될 수 없어 양자를 동시에 추구해야 했던 논밭병행영농의 생리가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시공간이다. 농민들은 이에 대하여 “삼그루판에는 부지깽이도 땀도 땀다”거나 “그럼자까지 일한다” 혹은 “굼벵이도 제 일 할 때는 세 길을 땀다는 거지”라는 등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 시기의 분주함을 묘사하고 있었다.⁵⁰⁾ 앞서 인용한 바, 모내기가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밭병행영농의 농민들이 밭농사로 달려가지 않을 수 없었던 생태적 합리성이 여기에 있다. 논밭농사를 병행하는 소농의 안정적 생계에 대한 지향이, 반건조 자연환경 아래 실농의 위험을 키우는 이앙법 논농사의 확대를 밭농사에의 노동력 증투(增投), 그리고 단위작업당의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는 농법의 개발로 보완하게끔 하였던 것이다.

IV. 식민지 조선의 장마와 농업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

대체로 조선에 진출한 일본인들은 일본의 우기(매우)와 조선의 우기(장마), 보다 폭넓게는 일본과 조선의 강수환경 사이의 차이에 대하여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48) 『千一錄』 「農家摠覽」 種大小麥: “三農之時 一日之力極難 若撒種 則可省一日二人之力.”

49) 『千一錄』 「農家摠覽」 種大小麥: “牟麥根耕之法 自是通行之農方 而不如代耨之爲妙 所謂代耨者 … 且於三農劇忙之時 除其根耕之功 ….”

50) 앞 줄지, 55쪽.

분명한 인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조선에서의 짧은 체류 만으로도 오감으로 직접 느낄 수 있는 현실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불과 수개월의 조사를 통해 한말의 일본농상무성 조사원들은 “대개 한국의 벼농사라는 것은 한편으로 수해를 입음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 물 부족으로 곤란을 겪게 되어 있으니 두 가지 재해 중 어느 쪽이 클 것인가. … 한국 또한 다우다습을 두려워함은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39년[1906년]처럼 ‘올해는 우년(雨年)인 관계로 양작(良作)이 된다’고 하고 우리나라[일본]는 ‘한년(旱年)인 고로 풍작이 된다’고 하니…”라고 적고 있었다.⁵¹⁾ 갓 부임한 동양척식주식회사 직원 역시 “조선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조선의 사정에는 심히 어둡습니다만, 조선의 농촌에 대해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은 물이라는 문제입니다. … 매년 모내기철이 되면 비를 그리는 듯이 농민이 조석으로 하늘만 쳐다보며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걱정하고 있는, 이만 마음고생만으로도…”⁵²⁾라고 적을 수 있었다. 그만큼 이 차이는 명백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 이는 두 가지의 서로 구별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하나는 일본의 매우가 조선의 장마와 서로 완전히 종을 달리할 뿐 아니라, 매우가 일본에만 고유한 독특한 자연현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다. 다음은 1922년 경성측후소장을 지내던 구보타 지로키치(窪田次郎吉)의 “조선에는 없는 매우 이야기”라는 글의 일부이다.

[매우와 비슷한 조선의 기상현상은] 남선의 일부 즉 대구 이남에서 보이지만, 이조차 내지와 같은 것이 아니며 … 조선에서는 매우보다 다소 늦게 6월말부터 7월에 걸쳐 우기에 들고 만주에서도 우기는 조선과 거의 마찬가지로의 양상인데, 소위 저녁소나기(夕立雨)처럼 억수로 퍼붓기도 해서 이를 두고 조선에서는 매우가 내지보다 1개월 후에 온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조선에 실제로 매우는 없다. 조선뿐 아니라 중국에도 없으니, 완전히 매우라는 것은 일본에 독특한 것이다. … 같은 일본 내에서도 대만은 조선과 마찬가지로서 일본과 같은 매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 7월경에 강우가 있는 것은 매우가 아니다. 그것은 내지에서 220일 전후로 태풍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선에서도 기압 관계 상 이때 마침 강우의 시기에 이르는 것으로, 그 성질은 내지의 매우와는 완전히 상이한 것이다.⁵³⁾

51) 本田幸介, 鈴木重禮, 原熙, 『韓國土地農産調査報告: 黃海道』(農商務省, 1906), 153쪽.

52) 渡邊得四郎, “朝鮮の農業と水利”, 『朝鮮農會報』 21권 7호 (1926), 21쪽.

53) 窪田次郎吉, “梅雨の話(朝鮮には無い)”, 『朝鮮及滿洲』 176 (1922), 51-52쪽. 이 글이 실린 잡지 『朝鮮及滿洲』 176호의 목차에는 이 글의 제목을 “梅雨に就て”라고 적어 놓았다.

매우가 중국에도 없다는 주장은 앞서 살핀 것처럼 이 말의 기원이 중국이라는 점을 몰각한 것이며, 기상학적으로 장마가 매우보다는 태풍에 더 유사하다는 주장 역시 현대과학의 견지에서는 성립하기 어려운 극론이다. 이러한 난점을 보이기에는 하지만, 구보타는 나름의 기상학적 논의를 토대로 매우가 장마와 본성이 다른 일본 특유의 기상현상이라는 생각을 적어 내려가고 있다.

이것이 그만의 독특한 생각이 아니라는 점은 다른 기상학자의 설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29년 경성측후소 기수로 있던 이토 노보루(伊藤登)는 “매우는 일본 본토의 특질적 현상”이라는 부제를 단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내지의 매우계절에 이[양자강 일대에서 발생하여 동북진해 옴으로써, 시베리아에서 동진하여 일본 동북방면에 위치한 고기압과의 사이에서 매우를 내리게 하는] 저기압의 진로관계로 조선반도는 완전히 그 권역 밖이 되어 비교적 비가 적게 된다. ... 딱 내지의 매우가 끝나갈 즈음이 되면 북해 방면의 고기압이 점차 남방으로 이동하므로, 그 일단이 본방의 서부를 통과하며 조선쪽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고기압이 남하함에 따라 습기가 많은 공기가 흘러 저녁소나기성의 큰 비가 조선반도에도 찾아든다. 이것이 조선의 우기로, 순조롭게 진행하면 7월경에 도달하게 된다.”⁵⁴⁾ 역시 매우와 장마는 서로 기원과 성질이 다른 기상현상이라는 인식이 드러난다. 또한 그 부제에 보이듯이 매우가 일본 고유의 독특한 것이라는 생각도 엿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매우가 일본에만 고유의 특유의 기상현상이라는 인식을 벗어나 보다 광범위한 동아시아적 기상현상의 일부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한반도에 대해서는 남부지역에 대해서만 그 권역 안으로 포괄하며 중부 이북의 우기는 성질이 다른 강수현상이라고 파악하는 경향이다. 앞서 인용된, 남선의 우기와 중부(경인) 이북의 우기를 구분했던 조선총독부 관측소장 고토의 설명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 사례들에서도 이러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매우의 징후는 5월 중 오가사와라(小笠原) 섬과 류큐(琉球), 타이완 등의 섬들과, 남지나 방면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여, 점차 북쪽을 향해 이동하고, 6월 초순경에는 규슈 남부와 지나의 강남 지방을 잇는 지대 주변까지 나아옵니다. 7월에는 조선반도와 혼슈의 동북지방을 점차 북쪽으로 지나가는 것입니다만, 조선북부, 홋카이도 방면에서

54) 伊藤登, “内地の梅雨と朝鮮の雨季: 梅雨は日本本土の特質的現象”, 『朝鮮及滿洲』 260 (1929), 61쪽.

는 운천과 우천이 이어져도 습도의 증가는 거의 없이, 내지의 매우 상황에 비긴다면 각별히 매우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매우 같지 않은 매우가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간단히 “매우 없음”이라고 하는 편히 오히려 적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⁵⁵⁾

매우기라고 해서 온 세계에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며, 우리나라의 오우(奧羽)로부터 규슈까지, 지나의 양자강 유역에서 조선의 남부쯤까지에 한정되는 것으로, 가라후토(樺太)나 홋카이도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⁵⁶⁾

이러한 설명들은 동아시아 수준에서 혼슈 이남의 일본과 조선의 남해연안 및 중국 양자강 유역의 매우와 조선 중부 이북의 우기를 구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사한 인식은 동아시아의 여름우기가 일본 서부로부터 중국 동부해안과 조선, 만주를 차례로 통과한다는 설명을 했던 『조선의 기상』(1919)에서도 드러나므로,⁵⁷⁾ 첫 번째 경향에 비해 딱히 시간의 흐름과 함께 나타난 과학적 진보의 결과라고 보기도 힘들다. 추정컨대, 전자의 인용문에도 나타나듯이, 강수량상이나 습도 등 지각가능한 수준의 특징을 바탕으로 매우와 다른 우기(장마 포함)를 구별한 후, 그것이 일본에만 고유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여하 간에, 이러한 견해에서도 매우와 장마의 차이에 대한 인식은 또렷이 존재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런 논리들은 어디에서 유래하여 무엇에 복무하는 것일까. 과학이 인간이 경험하는 자연의 객관적 실재와 함께 특정 지역의 역사 및 사회문화적 환경을 반영하며 형성되는 것이라면,⁵⁸⁾ 이러한 서술들에는 그에 결부된 문화적 설명체계들이 세트로 결부되어 있음에 틀림없다. 이 역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 글의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일본의 쌀농사와 매우의 관련성에 대한 언설들이다. 이미 앞에 인용된 설명들에도 상당히 드러났지만, 그 외에도 많은 글들이 매우와 쌀농사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매우철의 시작을 뜻하는 입매(入梅)라는 절기가 본래 망종 후 첫 임(壬)의 날인데 망종은 바로 까끄라기가 있는 곡식, 즉 벼를 심는 절기에 해당한다거나,⁵⁹⁾ 고래 미작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일본에

55) 築地宣雄, “梅雨期の天候と衛生”, 『朝鮮研究』 6권 7호 (1933), 50쪽.

56) 矢吹常夫, “梅雨の話”, 『朝鮮及滿洲』 271호 (1930), 62쪽.

57) 平田徳太郎, 앞 책, 57-64쪽.

58) 김기윤, “생태학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관한 역사적 고찰”, 『한국과학사학회지』 24권 1호 (2002), 40-56쪽.

59) 矢吹常夫, 앞 글, 62쪽.

서 매우기에 많은 강우량을 보이는 점은 대단히 중요한 조건이라는 식이다.⁶⁰⁾ 다음과 같은 극적인 서술도 있다.

이 비[매우]는 우리 일본인에게 특별히 내려진 신의 선물로도 생각된다. 즉 우리의 주식물인 쌀이 나는 나무, 곧 벼를 심는 것이 마침 이 계절로, 샷갓과 도롱이로 몸을 두른 농민이 비에 젖은 채 모내기 노래를 재미나게 부르며 모내기를 하는 등도 이 계절의 아름다운 그림이다. 이 비가 없었다면 우리 일본인은 쌀을 먹을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쌀을 먹는 인간이 사는 나라에 벼를 심을 무렵 소위 매우가 찾아든다는 것이 신의 특별한 배려처럼 느껴지는 것이다.⁶¹⁾

이미 많은 논자들이 지적하여 왔듯이, 쌀을 일본인의 마음과 결부하여 일본문화론을 논하는 방식은 일본 내셔널리즘의 한 전형적인 수사가 되어 왔다.⁶²⁾ 여기에 서 쌀이 일본인다움의 문화적 상징이라면 기상학자들의 글에서 매우는 그것이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자연환경적 토대가 되는 셈이다. 매우가 일본에 고유한 현상이라는 것, 혹은 조선에는 없는 신의 은총이라는 것은 이러한 문화적 상징을 활용함에 있어서 대단히 ‘생각하기에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매우는 조선의 장마와 짝을 이루는 한편으로, 일본의 매우철에 조선에 팽배한 가뭄과 짝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매우기의 자우(慈雨) 아래 땅에 발 붙이고 근면하게 일하는 일본 농민과, 이에 대비되어 가뭄에 시달리며 약간의 어려움에도 농토를 버리고 떠날 궁리를 하는 조선 농민의 대비로 귀결되기도 한다. 다음은 조선총독부 농사시험장에 근무하던 한 농학자가 적어 내려간 ‘조선농민론’이다.

금년 조선의 한발은 너무나도 처참하였다. ... 모내기철이었던 조선의 농민에게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유일하게 기댈 언덕이었던 것인데, 찻찻 갈라져가는 대지를 바라보면서 화가 치밀었던 것 같다. 입추와 더불어 농민의 전직(轉職)이 시작되었다. 실

60) 築地宣雄, 앞 글, 51쪽.

61) 伊藤登, 앞 글, 61쪽.

62) 오누키 에미코, 『쌀의 인류학』 (소화, 2001); 山内明美, “自己なるコメと他者なるコメ: 近代日本の<稲作ナショナリズム>試論”, 一橋大學言語社會研究科2007年度紀要『言語社會』2호 (2007); 中山大將, “周縁におけるナショナル・アイデンティティの再生産と自然環境の差異: 樺太米食撤廢論の展開と政治・文化エリート”, 『ソシオロジ』163호 (社會學研究會, 2008); 니시카와 나가오, “서구화와 회귀: 내셔널 표상을 둘러싼 투쟁에 관하여”, 『쌀·삶·문명』 창간호 (2008).

로 화끈해서 결단력이 화통하다면 화통하지만, 해내고야 말겠다는 욕심이 없다. ... 그들의 이사도 극히 간단하지만, 더욱이 사랑스런 대지를 버리고 흔쾌히 떠날 수 있는 마음은 그보다 더 간단하다. 자기의 직업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일이 심요(心要)하다. 특히 농업에서는 이러한 감이 더욱 깊어서, 그 사랑은 진지함을 필요로 한다. ... 농민은 밭을 굳건히 대지에 붙이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 대지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으면 안 될 터인 중요한 밭이 허공에 떠서 등실등실 흘러 다녀서는 한심할 따름이다. 깊고 진한 그림자로 그 얼굴에 주름이 새겨져 있기는 하지만, 어딘지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무관심한 표정이 느껴진다. ... 조선의 농민 전체가 더욱 과학 등의 일과 씨름하는 데에서 구김살이 없고, 굳건히 밭을 땅에 디디도록 되어준다면 얼마나 기쁠까.⁶³⁾

여기에서 조선의 농민들은 천직으로서의 농업, 그리고 그 터전으로서의 대지에 대한 애착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유리도산을 일삼고 과학을 신봉하는 마음조차 갖지 않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농민들을 겨냥한 이러한 탄식에도 불구하고, 재상을 입은 농민들의 도망·유리(遊離) 가속화는 농민심성의 탓이 아니라 식민농정의 직접적 결과이기도 하였다. 반건조지대 조선에서 빈발하는 가뭄이 닥치면, 재래의 방식으로 심은 내한성(耐旱性)의 메밀, 피, 조의 작황은 좋았지만 벼농사는 엄청난 타격을 입었으며, 특히 산미증식계획에 의해 일본농법이 보급된 지역에서 그 피해가 더욱 컸다.⁶⁴⁾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적지만 많은 비료를 필요로 하지 않고 가뭄에도 강하던 다양한 재래 벼품종은 농정당국과 지주의 강제에 의해 소수의 소위 ‘우량종’으로 ‘개량’되었고, 품종 단순화와 비료사용의 증대에 의해 병충해 재상률도 높아졌다.⁶⁵⁾ 18세기 후반 들어 체계적인 정리를 이루기 시작하던 재래의 지역농법⁶⁶⁾은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일본식 근대농법—소위 메이지농법 혹은 후쿠오카농법—에 의해 일방적·폭력적으로 구축을 당하였고, 농민들은 스스로 짓는 농사에 대한 재량권을 잃어갔다.⁶⁷⁾ 무엇보다도 논농사 일방의 식량증산정책으로 인해 밭과 미간지—모두가 불안정한 쌀농사를 보완하는 농민의 생계자원이

63) 中澤雅典, “朝鮮農民の足”, 『朝鮮農會報』 13권 12호 (1939), 86-87쪽. 나카자와는 1939년 당시 조선총독부 농사시험장 병리곤충부의 기수로 재직하였고, 이듬해 관동 승급과 함께 경주중앙장으로 옮겼다.

64) 가와타 히로시, 『다카하시 노보루』 (동아일보사, 2010), 203쪽.

65) 이호철, “조선후기 농서의 수도품종 분석”, 한국농업사학회 편, 『조선시대 농업사 연구』 (국학자료원, 2003); 소순열·이두순, “일제하 수도작 기술체계의 변화와 성격”, 한국농업사학회 편, 『동아시아 농업의 전통과 변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218-226쪽.

66) 엄정섭, 앞 책, 301-420쪽.

67) 앞 줄지, 224-230쪽.

있던—를 논으로 개간하여 쌀 단작화(單作化)를 밀어붙임으로써 위기에 대한 취약성이 증대되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조선총독부 관리 자신의 설명이다.

지주의 채산으로 따지면 밭보다 논이 경영이 유리하며, 고래 조선에서 수리불안전함이 증가한 것도 이 자본적 경향에 유래하는 것이다. 금일의 수리조합지역의 토지에 있어서도 지주 측에서 이를 보면 밭은 될 수 있는 한 전부 개답(開畓)하여, 미작에 의해 수확을 올리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벼농사의 단일경영이 소작인에게 있어서 여하히 불리한지는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설정된 수리사업지구에서는 촌지(寸地)도 남김없이 개답하는 계획 아래 설계가 이루어져 있고, 심할 경우 대지(垈地)에 대해서 수세(水稅)를 부과하는 일도 있다. 이리하여 농가는 그 부근에 밭을 갖지 않게 되므로, 농가이면서도 채소를 타인의 공급에 기대며, 초생지(草生地)가 결핍되어 경우(耕牛)의 사양(飼養)이 불능상태에 빠지고, 우축(牛畜)의 노동력에 대해서도 임은(賃銀)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합리한 경영이 행해지고 있다. 또 이로 인해 노동력은 일시적으로 부족해지고 일시적으로 과잉이 되며, 부업을 하려해도 새끼 꼬기·가마니 짜기 등 외에는 재료생산의 여지가 없다. 연료, 퇴비, 재료의 수집도 곤란하다. 이와 같이 수리사업지의 전면 개답은 지주의 채산, 조합의 경영에는 유리하지만, 소작인에게서는 심한 파행적 경영으로 되어, 결국 소작료의 태납(怠納)이 되고 벼의 도취(盜取)가 되어 드디어는 소작인의 도망을 결과하며, 그 중국에는 수리사업으로 하여금 구할 수 없는 난국에 빠져들게 하는 것이다.⁶⁸⁾

이렇게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늘고 지주의 수입이 증가하여도 생활비와 위험성 역시 증대되어 소작농민의 삶은 도리어 악화되는 상황은, 이 글에 나타난 수리조합지대만 아니라, 식민지 조선의 농민생활 일반에서 관찰되는 양상이었다. 조선총독부의 촉탁으로 조선 각지를 돌았던 일본 농촌진흥운동의 저명한 지도자 야마자키는 농사개량에 의해 늘어난 생산수입을 초과하는 소비지출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래서는] 미개(未開)이던 당시가 좋았다고 여기고 불편한 옛날을 그리워함도 무리가 아니다. … 총독정치를 원망하고, 정책을 저주하며, 인심의 악화, 퇴화를 봄은 금일의 상세(狀勢)가 아닌가.”라고 평한 바 있다.⁶⁹⁾ 모두가 전시체제기로 접어들기 전, 공황에 따른 일본 내 쌀 소비부진으로 산미증식계획이 중단되기도 전, 조선에서 수리조합설치가 한창이고 일본근대농법으로의 개량도 이미 확실히 진

68) 船越光雄, “不良水利事業の成因檢索”, 『朝鮮農會報』 6권 11호 (1932), 34쪽. 후나코시 미츠오(船越光雄)는 1884년 일본 효고현(兵庫縣) 출생으로 도쿄농과대학을 나와 1910년 1월 강원도 기수(技手)로 임명되어 조선으로 건너왔으며, 1917년에는 종묘장 주임으로, 1927년 8월에는 조선농회 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69) 山崎延吉, “朝鮮農事の管見(三)”, 『朝鮮農會報』 6권 12호 (1932), 4쪽.

전을 본 시절의 기록들이다.

이러한 지적들이 쌓이는 한편 전시체제가 본격화되면서 쌀 증산을 위한 토지와 농사의 개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이 취약해지자, 조선총독부의 농정은 점차 발농사, 특히 재래 발농사기술들을 재평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아마도 1934년 산미증식계획의 중단을 전후하여 발농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언급이 늘어난다는 점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1933년 10월 풍수해복구 시찰을 위해 경북 칠곡에 들른 우가키 총독은 조선에 농작물은 쌀, 임산물은 소나무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편벽된 머리의 소치라면서 종래 미작에 간혀있던 습관을 뜯어고치자고 훈시하였다.⁷⁰⁾ 이듬해 산미증식계획의 중단 발표에 이어 『조선농회보』는 논을 열애하는 조선 고래의 관습이 논으로 적당하지 않은 토지까지 논으로 만들어 한밭의 위험을 초래한다면서 밭은 밭인 대로 경영하도록 궁리하자는 권두언을 실었다.⁷¹⁾ 그러나 앞서 조선총독부 관리가 자성한 것처럼 밭과 초생지까지 남김없이 논으로 개간함으로써 농민생계를 위기에 빠트린 주요 원인이 조선총독부가 적극 추진한 수리조합사업이었음을 아는 우리로서는, 이를 ‘조선 고래의 관습’ 탓으로만 돌리는 논리는 다소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여하 간에 중요한 것은, 논과 밭의 병행영농의 불가피성, 나아가 조선의 현실에서 그것이 오히려 유리한 방법일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식민지 농정의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본격적으로 거론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전환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은 아니며, 1920년대 중반 이래, 혹은 1919년 조선총독부 권업모범장 서선지장 설치 즈음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오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결과이기도 하다. 1925년에는 총독부 식산국 농무과에서도 그간 밭작물의 개량증식예산이 모두 지방비에 맡겨짐으로써 충분한 성과를 올리지 못했으면서 각 지방청에서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중인 발농사의 개량증식시책을 조사하여 발표하였다.⁷²⁾ 그러나 같은 과에서 1931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여전히 총독부의 적극적인 시책이 없이 모두가 지방청에 맡겨짐으로써 발농사의 개량증식이 충분한 성과를 올리지 못했으면서, 오래된 유행가 음반을 틀 듯 6년 전과

70) “農村中堅人物に對する總督の訓示”, 『朝鮮農會報』 8권 1호 (1934), 3쪽.

71) 芹香生, “卷頭言・産米増殖施設の中止と農家の覺悟”, 『朝鮮農會報』 8권 7호 (1934), 1쪽.

72) 朝鮮總督府殖産局農務課, “朝鮮に於ける食糧田作物の改良増殖計劃(上)”, 『朝鮮農會報』 20권 8호 (1925), 58-61쪽.

똑같은 ‘유감’을 되풀이하고 있었다.⁷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누적되는 ‘유감’들이 일정한 정책의지의 표명으로는 나타나고 있었는데, 문제는 마땅한 대책이 없었다는 점이었다. 1930년의 전작개량 계획은 우량품종의 보급과 모범작포 설치, 기술원·지도원의 배치가 그 핵심인데,⁷⁴⁾ 무엇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았다. 1931년에는 다시 전작개량증식계획이 발표되었는데, 기존의 모범작포 대신 1면 1개소의 지도포를 설치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⁷⁵⁾ 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전작개량에 대해서, 특히 그 핵심을 이루는 지도포 설치의 실제 의의에 대해서는, 아마도 1937년의 전작개량증식계획의 경개(更改)를 천명하며 밝힌 조선총독부 스스로의 평가, 그리고 1920년대 이래 강원도종묘장 및 농무과에서 잔뼈가 굵어 일제 패망 당시 조선총독부 기사로 재직하던 구리스에(栗末只雄)의 다음과 같은 글이 이해를 도울 것이다.

전작개량증식계획은 실시한 이래 이미 6개년을 경과하여 일단 계획대로 시책을 완료하였습니 다만, 장려기술원의 인선이 마땅치 않았던 경우들이 있고 또 우량품종 보급 사업, 전작지도포의 운영 및 전작개량조합의 지도 등 본 계획의 가장 중요한 시책의 실시상황이 여전히 미온적인 감이 없지 않으므로....⁷⁶⁾

“저만큼 비료를 주고 저만큼 손이 많이 가니까 지도포(指導圃)에서 많이 나는 것은 당연하다. 도저히 우리는 할 수 없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이런 농가일수록 무슨 일에 대해서든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실제 해보려는 생각은 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지 않는다고 내버려두어서는 몇 년이 지나도 증식의 실적은 오르지 않는다. 하물며 3개년을 기하여 지도포가 설치된 동리(洞里)는 물론 이를 중심으로 하는 주요 동리를

73) 朝鮮總督府殖産局農務課, “畑作改良増殖計劃の實施に就て”, 『朝鮮農會報』 5권 4호 (1931), 2-18쪽.

74) 전작개량계획의 내용은 다음 5개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①우량품종 종자보급 ②전선(全鮮) 200군에 기술원 배치 ③각도 종묘장에 품종개량에 관한 기술원(技術員) 배치 ④모범작포(模範作圃) 설치와 함께 재배지도에 필요한 지도원(指導員)의 배치 ⑤농사시험장 서선지장에 전작품종개량 기술원(技術員) 설치. “畑作改良計劃”, 『朝鮮農會報』 4권 12호 (1930), 99쪽.

75) 전작개량증식계획은 모두 3개항①우량품종 육성 및 보급 ②보리·콩·조의 주요재배지 200개 군도(郡島)에 1면 1개소의 지도포 설치 ③지도포를 설치한 지방에서 전작개량조합 조직)으로 이루어져있고, 여기에 지도포(指導圃) 설치의 요강 7개항이 부가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畑作改良増殖計劃”, 『朝鮮農會報』 5권 3호 (1931), 112-113쪽.

76) “畑作改良増殖計劃ノ更改”, 『朝鮮農會報』 11권 6호 (1937).

지도포 수준으로 향상시키지 않으면 안 되니 더욱 그러하다. 의논으로 지새워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지도기간 3년은 지났는데 부근 일반 작포(作圃)는 의연히 구태 그대로 ... 우려되는 것은 바로 이 점이다.⁷⁷⁾

조선총독부에 의한 일련의 밭농사 개량정책은 다시 1937년의 전작개량증식계획의 경개(更改), 1940년의 전작증산계획 수립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 시기가 되면 밭농사 개량은 전시체제의 심화에 따른 긴급식량대책이 중심이어서, 콩과 조의 재배면적은 줄이지만 반당생산량은 줄이지 않는다는든가 보리를 쌀보리로 바뀌어나가는 쌀보리주의(裸麥主義)로 전환한다는 등, 정상적인 밭농사 개량의 범역을 벗어난 대책이 그 위주였다.⁷⁸⁾ 경기지역에서의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던 전작개량계획의 족적으로는, 맛은 없지만 키가 작아 잘 쓰러지지 않는 개량품종인 소위 ‘얕은뱅이보리’를 보급한 것, 그리고 쟁기로 켄 고랑을 폭이 좁은 고무래나 소시랑 등으로 다듬어 바닥을 넓히고 한 그루당 많은 종자를 파종하도록 하는 소위 ‘보리 광파(廣播)’ 혹은 ‘대량골’(또는 ‘개량골’)의 도입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의 보급은 특히 경기남부의 밭농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농민들로부터도 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다.⁷⁹⁾ 그러나 맥류 외의 밭작물에 대해서는 농민들로부터 개량품종보급의 영향이 뚜렷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는 식량밭작물의 재래품종이 나름의 우수성을 지녔기 때문이기도 하였다.⁸⁰⁾ 조선총독부의 밭농사의 개량에 별다른 대안이 없었고

77) 栗末只雄, “田作改良増殖上より見たる肥料問題”, 『朝鮮農會報』 6권 8호, (1932), 63쪽.

78) “畑作増産計劃”, 『朝鮮農會報』 14권 10호 (1940). 전시체제 아래에서 조선총독부는 정책적으로 콩 및 조의 재배면적은 줄이고 이를 면 및 고구마 재배로 돌리려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

79) 대개 얕은뱅이보리에 대한 농민들의 평가는 ‘맛은 없지만 키가 작기 때문에 수확기에 많은 비가 와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보리 광파의 의의에 대해서는 和田滋穂, “農作物の綜合的増産に就て”, 『朝鮮農會報』 14권 9호 (1940), 4쪽을 볼 것. 보리 광파에 대한 경기남부 농민들의 반응은 다수확법이라는 점에서 대개 긍정적인 것이었는데, 양평 북부 지역의 경우 부정적인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판단의 차이는 기후조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80) 조선 재래 밭작물 품종의 우수성에 대한 일본인의 기록으로는 다음을 볼 것. “勸業模範場昨年田作(下)”, 『韓國中央農會報』 2권 6호[韓文附錄第七] (1908), 6-7쪽; 野木傳三, “勸業模範場畑作物の作況”, 『韓國中央農會報』 3권 8호 (1909), 13쪽; 鵜野勝之, “朝鮮大豆の現状と白目大豆増産の必要性”, 『朝鮮農會報』 13권 4호 (1939), 44-45쪽. 우노(鵜野勝之)의 글은 일본시장에서 조선 콩의 경쟁상대가 없어서 조선 콩의 종자개량이 지체되었기에 이제 박차를 가해야한다는 내용이나, 뒤집어보면 우수했기 때문에 수십 년간

실제 별 힘을 쓰지 못했던 것은, 그만큼 조선식 밭농사의 일본식 밭농사에 대한 경쟁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재래식 밭농사의 경쟁력은, 종자의 문제뿐 아니라 농법의 영역에서도 점차 재조명되고 있었다. 조선식 밭농사에서 윤작·간작·혼작 농법이 성행함은 종래 조선농업의 유치함을 조롱하는 상징이다시피 하였는데,⁸¹⁾ 이것이 재평가를 받게 된 것이 대표적이다. 물론 이러한 재평가 역시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조선총독부 권업모범장의 기사로 1920년대 중반 서선지장장을 역임한 다케다 소시치로(武田總七郎)는 간작을 작부체계의 주요한 고리로 삼는 조선중부의 2년3작 농법에 대해 “모든 윤작법 중 가장 면밀히 궁리된 것으로 그 고심참담의 자취가 역연(歷然)하다. 요컨대 학리(學理)를 응용함에 있어서 미진한 바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전 세계에 이보다 앞서는 것은 절대로 없다.”고까지 한 바 있다.⁸²⁾ 우리에게 친일파의 거두로 기억되지만 박영효 역시 1928년에 밭앞그루 수확에 이은 신속한 그루같이 파종과 혼작 농법에 대해 “일견하면 매우 질서 엮는 원시농법과 갖치 보히지마는, 비교적 재해가 만흔 토지에서는 찰아리 진보한 방법”이며 “역사(如斯)함을 불구하고 맹목적으로 신방법이 반드시 시(是)라고 하여, 사건을 단정하는 경우에는 왕왕 착오를 생(生)하는 것”이라면서, “다년의 역사를 고려치 안코, 돌연히 과학적 방법 혹은 신농법에만 준거하라는 듯한 경향”을 질타하고 있었다.⁸³⁾

1930년대 후반 이후가 되면 이러한 재평가의 경향은 보다 큰 흐름으로 바뀌어 여러 논자들이 재래 밭농사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글을 내놓게 된다. 1913년 도쿄 제국대학 농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9월 권업모범장 기수로 조선에 부임해서 1921년 조선총독부 농무과 기사, 1932년 곡물검사소장, 1938년 조선미곡창고주식회사 사장이 된 이시즈카 준(石塚峻)은 재래의 혼작농법이 한밭지역의 구한농법

경쟁상대가 없었던 것이라는 점에서 조선 재래종의 우수성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이 글은 조선의 식민화 당시 일본 품종을 조선에 이식하려는 기본계획이었다고 적고 있으나, 한말 권업모범장의 실험기록은 그와 반대의 사정을 보여주기도 한다. 일본에 의한 식민지 조선에서의 농업개량을 총괄한 일본 농림성열대농업연구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밭작물에 대한 육종사업이 부진했던 가운데, 콩은 적극적인 육종에 의한 우량품종 갱신율이 밭작물 중에서 가장 높았다고 한다. 이호철, 앞 글 (1992), 291쪽.

81) 小林房次郎・中村彦, 『韓國土地農産調査報告: 京畿道・忠清道・江原道』(農商務省, 1906), 498쪽.

82) 高橋昇, 『朝鮮半島の農法と農民』(東京: 未來社, 1998), 82쪽.

83) 朴泳孝, “農業改良에는 溫故而知新이 必要하다”, 『朝鮮農會報』 2권 1호 (1928), 3-4쪽.

(救旱農法)으로서 크게 흥미로운 것으로 콩의 품질을 양호하게 한다고 평하고 있었다.⁸⁴⁾ 그는 유무라 신지로(湯村辰二郎)와 함께 조선총독부 미곡정책의 양웅(兩雄)으로 꼽히던 엘리트 연구자이자 정책가로 미곡문제의 권위자였다. 수원고등농림학교의 교수였던 히로타 유타카(廣田豊)는 1942년 “반도의 밭에 혼작은 극히 많다. … 작물의 종류는 참으로 다채로우며, 그 각 요구를 만족시키면서 경작지를 이용하려면 경쟁작물을 동일 경작지에서 재배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적확하며, 또 이 외에는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에 의해서 잎의 넓고 좁음, 지상부의 높고 낮음, 지하부의 깊고 얕음을 안배하여 공간과 지면과 땅속을 최대한 다대(多大)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게다가 제초의 번잡함을 줄일 수도 있다.”고 평한 바 있다.⁸⁵⁾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단지 농업기술에 대한 학리적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일정하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정감 차원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다음은 조선 그리고 중국 화북 등 건조 환경 아래의 면밀한 제초 노동에 대한 조선총독부 기사의 설명이다.

작물이 자란 후 토양으로부터의 증기(蒸氣)를 가능한 한 막으려는 목적과 잡초가 아직 어린 동안에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얇은 중경(中耕), 즉 표토의 교요(攪擾)⁸⁶⁾가 이루어진다. 얇은 중경은 지하와 지표와의 모세관인력을 끊어 지하로부터의 수분방산을 줄이는 외에, 토양수분의 낭비와 비양분(肥養分)의 약탈을 행하는 잡초의 제거에 도움이 된다. … 얇은 중경이 여하히 효과가 있는지는 수원에서의 표토교요의 시험성적으로부터 분명하다. 그리고 그 효과는 건조한 해일수록 현저하였다. … 올해 평안남도의 건답(乾畓) 지대에서 본 바로는 한발로 인해 벼가 시들시들해져있는 속에서 부부가 호미를 들고 정성스럽게 중경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 의기(意氣), 이 불요불굴의 노력이 있어서 비로소 한해극복의 전망도 있는 것이라며 그림자도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쳐다본 일이 있다.⁸⁷⁾

상당히 감동적인 서술이기는 하지만, 왜 그러고 있는지 속사정을 알 수 없는 두 부부의 건답제초광경에 우리까지 덩달아 감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

84) 石塚峻, “旱地農法と救旱に就て” 『朝鮮農會報』 13권 9호 (1939), 11쪽.

85) 廣田豊, “朝鮮の營農(一)”, 『朝鮮農會報』 16권 11호 (1942), 5쪽.

86) 여기서 말하는 ‘얇은 중경 즉 표토의 교요’란 가와구치(川口清利)의 용어로는 ‘풀깎기형 호미’, 김광언의 용어로는 ‘세모형 호미’에 의한 제초작업을 말한다. 이 호미날의 평평한 면으로 밭의 지표면을 긁으면 한편으로 잡초가 제거되고 다른 한편으로 지표의 흙이 이동되어 반반하게 다져지게 된다.

87) 小野寺二郎, “朝鮮の旱害と技術的克復方案”, 『朝鮮農會報』 14권 1호 (1940), 46-48쪽.

은, 왜 그러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두 부부의 제초광경에, 불과 이십 년 전에는 비슷한 광경을 보고 조선농업의 유치함을 언급하거나 구 조선정부의 학정으로 인한 농민의 팍팍한 삶을 통탄하였을 일본인들이, 이제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낫을 놓고 쳐다보게 되었다는 점이며, 또 그러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조선의 농업을 보는 태도 자체가 달라져 있었다는 점이다. 1944년 5월, 앞서 인용했던 다케다 소시치로(武田總七郎)를 잇는 조선 재래농법 연구의 선두주자로, 민속학적인 농촌연구로까지 보폭을 넓혀가고 있던 다카하시 노보루(高橋昇)의 조선농사시험장 기구 및 연구 개편안이 수용되었다.⁸⁸⁾ 다카하시가 조선농사시험장 서선지장장이던 시절, 이와 같은 행보에 대해 수원의 본장장으로부터 탈선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경고를 전해 듣고 “수원의 인간들이 뭘 할 수 있다고”라고 반발했던 것이 불과 7년 전의 일이었다.⁸⁹⁾ 이러한 전환은 반건조지대의 자연환경이 수리사업과 논농사 일변도의 농업증산책을 무력화시키고, 반건조지대에서 논농사의 증대가 그에 따른 실농의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밭농사의 증대로 귀결된 또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논농사 중심의 일본식 근대농법과 쌀 단작화로 귀결된 미곡증산을 추구하던 조선총독부의 농정이 식민지 조선의 반건조 자연환경에 포획되어 적응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V. 맺으며—한계와 의의

이 글은 혹자가 장마라 부르고 혹자는 매우라 부르는 동북아시아의 여름철(늦봄) 우기를 가리키는 용어상의 차이로부터 시작하여, 식민지 경험이라는 것이 식민자와 피식민자 모두가 상호변용되는 과정이라는 점에 대한 확인으로 나아가려는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한 상호변용은 기상학이나 농학과 같은 고도의 전문적 영역으로부터, 이들이나 그 주변인물이 신문이나 잡지에 게재하는 이와 관련한 다양한 잡문들, 그리고 기상이 되었든 농사가 되었든 그것과 씨름하

88)가와타 히로시, 앞 책, 235쪽. 구미식 농학을 추구하던 권업모범장의 수원본장과 재래적인 농민의 방식을 중시하던 사리원의 서선지장 사이의 갈등 내지 노선 차이에 대해서는 1920년대 초부터 다케다 소시치로도 언급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같은 책, 95-104쪽.

89) 같은 책, 158쪽.

며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농민의 일상경험에 이르기까지, 다기한 영역에 걸쳐있다. 그 다양한 장들에서 식민자들은 식민지의 자연환경과 피식민자의 삶이라는 낯것으로서의 현실에 조우하고, 처음에는 조롱과 멸시를 퍼부으며 우월감에 도취하다가, 이윽고는 그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적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식민자가 들여온 기상학이나 농학의 학문적인 ‘앎’이라는 것이 식민지 그리고 피식민자의 현실과 서로 엮이며 짜여 들어가는 총체적인 양상을 그려냄으로써 과학, 기술과 삶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보다 풍부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추구함에 있어서 이 글이 갖는 한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특히 중요한 문제 한 가지만을 지적해두기로 한다. 몇 가지의 희미한 윤곽을 잡고 있지 못한 바는 아니나, 기본적으로 이 글에서 거론된 기상학자 그리고 농학자들의 학문적 계보와 그들의 상호영향 혹은 배제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에 도달하여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추구된 접근은 제국 일본 내에 존재했던 다기한, 적어도 둘 이상의 경쟁적인 지식의 체계들에 대한 설명에 이를 필요가 있으며, 이 이해를 토대로 그러한 경쟁적인 흐름들이 식민지 조선에서는 어떤 식으로 배치되어 어떤 제약과 영향관계 아래 전개되었는지에 대한 파악으로 나아감이 마땅하다.⁹⁰⁾ 이는 필자를 포함하여 이 문제를 다루는 연구에서 추구해야할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이 글에서 설명을 시도한 식민지에서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상호변용, 그리고 그들이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식민지의 자연환경과 피식민자의 삶의 방식이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반건조지대의 자연환경 아래 논농사의 증대가 밭농사의 증대를 또한 요구하게 되었고, 이 힘이 조선후기는 물론 일제시기에도 엄연히 그 규정력을 관철하여 나갔다는 점이다. 글의 들머

90) 코마로프 부부는 다음과 같이 적은 바 있다. “일관되고 단일한 과정으로서의 식민주의의 이미지는 결국 풀어져 내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제국의 광영(光榮)뿐 아니라 긴장들을, 식민주의의 패권적 과정뿐 아니라 내적 모순에 관심을 갖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는 근대세계의 피식민자들이 겪은 야만적 지배양상을 축소시키거나, 제국의 정책을 흔히 기반을 두고 있던 오웰적 논리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혹은 식민주의의 성격을 글로벌한 운동으로 해체하려는 것이 아니다. 대신 이는 우리의 분석의 범위를 넓히려는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그 오락가락과 뒤죽박죽의 순간들 속에서 내적인 뒤틀림과 뒤섞임을 포착하려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오랜 시간을 두고 식민자와 피식민자를 전례 없는 복잡다단한 관계망으로 빨아들여왔던 힘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그 양자의 형성과정을 문제의 틀로 삼으려는 것이다.” John Comaroff and Jean Comaroff, *Ethnography and the Historical Imagination* (Boulder and Oxford: West View Press. 1992), p.183.

리에서 한반도의 강수량상이 중국 양자강 유역이나 일본열도의 그것과 동일한 패턴을 보인다는 점 못지않게 어떻게 다른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적었다. 물론 유사성을 강조할 것인가 차이점을 강조할 것인가는 다분히 논지의 문제의식과 관련이 있어서,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다는 식의 문제가 아님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실제양상의 차이라는 차원을 포괄하지 않는 한 결코 전체에 대한 설명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논의는 미야지마 히로시가 제기한 동아시아 소농사회론⁹¹⁾의 다음 단계의 발전과 관련해서도 일정한 함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미야지마의 논의는 동아시아사를 서구와 다른 독자적인 모델로 유형화하려는 생각이 앞선 나머지 동아시아 삼국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반면 차이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단순화 또는 과소평가하였다는 지적을 받는다.⁹²⁾ 기실 그의 논의 안에는 동아시아 삼국의 공통점과 함께 차이점들도 포함되어 있지만,⁹³⁾ 그를 인용하는 논자들은 물론 미야지마 자신도 공통점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이러한 비판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배경이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위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이러한 공통점에 대한 지적을 인용하는 경우이다. 이들은 대개 조선과 일본 사이의 기후환경과 농업기술구조의 유사성을 거론하며 이로 인해 일본식 농법으로의 개량이 조선농민에게 쉽게 받아들여졌다는 주장을 전개하는 경향이 있다.⁹⁴⁾ 그러나 단순한 구분에 기반을 둔 유형론으로부터 공통점만을 강조하다 보면, 설명은 그것이 이르려야 할 바 설명대상과의 지시관계를 위기에 빠뜨릴 뿐 아니라, 일종의 이데올로기로 전락할 소지조차 생기게 된다.⁹⁵⁾ 이 글에서 일본근대농법으로의 개량을 강요당한 조선농민들뿐 아니라 그것을 강요하는 입장에 서있던 일본인 농학자·기상학자들이⁹⁶⁾ 조선의 자연환경에 대해 느꼈던 이질감, 한편으로 그러한 이질감에 기반을 두고 농정책이 점진적으로 수정되어 나갔음을 부각시키려

91) 宮嶋博史, “東アジア小農社會の形成”, 溝口雄三, 濱下武志, 平石直昭, 宮嶋博史 編, 『長期社會變動』[アジアから考える(6)]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94), pp.67-96.

92) 배항섭, “조선후기 토지소유구조 및 매매관습에 대한 비교사적 검토”, 『한국사연구』 149 (2010), 193쪽.

93) 앞 줄저, 384-388쪽.

94) 같은 책, 365-367쪽.

95) 같은 책, 401쪽.

96) 일본식 근대농법을 강요하던 식민지 농정당국 및 그 하수인들, 지주들과, 재래농법을 고수하던 농민들 사이의 갈등과 충돌, 조정의 양상에 대해서는 앞 줄저를 볼 것. 이 글은 이 책이 지닌 문제의식의 연장선에 있다.

했던 것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근거한다.

물론 모국과 다른 식민지의 특수성과 제국 판도 내에서의 다양성을 인식한다고 해서 식민주의적 인식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 기실 어떤 식민주의는 식민지의 다양성을 충분히 인정하는 위에 그것과 식민모국의 차별화를 기하는 다양한 지식의 체계들을 구축함으로써 제국의 이해(利害)와 취향에 복무한다. 이 글에서 기상학자들의 과학적인 설명이 일본 농업과 농민의 우수성, 그리고 이에 대비된 조선 농업과 농민의 낙후성을 강조하는 언설들로 연결되고 있었음을 지적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특수성과 다양성에 대한 파악이 없이는 반식민주의와 탈식민주의, 나아가 지적 종속을 벗어난 서로에 대한 대등한 인식과 이해의 체계에 도달하기 어렵다. 장마와 매우의 차이, 그리고 이를 포함하는 자연환경의 영향 아래 다양한 발전궤적을 밟아간 복수의 농업기술체계들이 저마다 지닌 특수성을, 그 공통성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포착하는 것은,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동아시아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대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논문 투고일: 2010년 11월 15일

심사 완료일: 2010년 12월 21일

<ABSTRACT>

Between *Jangma* and *Baiu*.

How Climate Prescribed the Agriculture of Colonial Korea

AHN Seung Taik

Institute of Rice, Life and Civiliz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angma 장마 is the Korean word, meaning the rainy season which happens in early or mid summer. It is called “*meiyu*” 梅雨 in China, “*baiu*” or “*tsuyu*” in Japan, written in the same Chinese character, which means the rain-fall in late spring or early summer of Japanese-apricot riping season.

This article starts with the observations on the two words that denotes the same meteorological phenomenon(part 1). Then it investigates the difference in actual regional deployment of rainy season between Korea and Japan based on daily meteorological statistics(part 2), and the way how climatic conditions are embodied in the main character of Korean agriculture(part 3). Finally, it reveals how Japanese meteorologists and agriculturalists in colonial Korea cognized the different climatic conditions, and were coerced to adapt to such a natural environment(part 4).

This article maintains that, in historical process, extension of the paddy-field agriculture is supplemented by intensification of the dry-field cropping, characteristic in semi-dried area such as the Korean Peninsula. It also maintains that colonial encounter is the mutual transforming process. This intends to criticize the arguments that erase the climatic and technological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Japan, which is advocated not only by some meteorologists but also by colonial modernization theorists..

Keywords: summer rainy season, semi-dried area, meteorology, agriculture, colonial experience of mutual transformation, colonial modernization theory